



6·25 격전지 찾은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정범진 교수가 말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진실
바닷가에 이 많은 쓰레기가? 알줍캠페인 참여하세요
민간정원으로 초대합니다

Yoon Suk Yeol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72e Assemblée
172nd General Assembly
#BIE172 @

“2030년 부산에서 만납시다”

윤 대통령 BIE 총회서 영어 PT...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

2023년 국민참여 모니터단

YOUNG하게! 공정하게!

청년이 중심이 되고,
국민 모두 참여하는

국민참여
모니터단



모니터단 신청 안내



모집대상

청년 이슈에 관심있고, '청렴·권익증진 정책' 모니터링 활동
(이슈발굴, 토론·숙의, 개선방안 제안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일반국민



신청방법

아래 QR코드, 권익위 홈페이지



접수일정

2023. 6. 20.(화) ~ 2023. 7. 3.(월)



최종발표

2023. 7. 10.(월), 합격자에게 개별 연락



지원서내용

지원동기 및 활동계획, 관심 있는 청렴·권익증진 정책 분야 등 □



모니터단 활용 내용 혜택



<https://naver.me/x0hvi4UV>



활동기간

2023년 7월 ~ 11월



활동내용

- ☒ 청년 관련 청렴·권익증진 정책 등에 대해 점검·모니터링 실시
- ☒ 토론회 및 분임활동 참여로 정책 개선안 도출
(토론회 8월 말 서울에서 개최 예정, 분임활동은 거주지별 자율활동)
- ☒ 국민생각 모니터단* 온라인 활동 (희망 시)
* 국민생각함에 등재된 여러 국민 안전·아이디어에 적극적 의견제시 활동 등
- ☒ 청렴·권익증진 정책 관련 온라인 설문, 활동, 행사 참여 등

활동혜택

- ☒ 우수 모니터단에게 국민권익위원장 표창 수여
- ☒ 위촉장(이메일 발송), 활동증명서* 발급
* 국민참여 모니터단 설문조사·온라인 정책제안 참여시 발급 가능
- ☒ 오프라인 토론회 참석 시 교통비 지급



5년 뒤 후회하지 않으려면



박진영

금융·경제 콘텐츠를
26만 MZ세대에게
매일 아침 이메일로
전달하는 경제미디어
(어피티) 대표

얼마 전 구독자 J님이 어피티에 ‘돈 문제로 후회하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할 당시 은행 직원이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Savings Account(저축계좌)’를 따로 만들어 관리하라고 조언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요. 7~8년이 지난 지금 J님은 무척 후회된다고 말합니다. 연차만 쌓이고 계좌에는 돈이 쌓이지 않았다고 해요.

J님과 비슷한 시행착오를 겪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돈 관리는 ‘상태’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때문에 심리적 요소는 돈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월급일 직후 적금으로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하고, 가계부를 쓰며 소비를 라벨링(표시)하고, 목적에 따라 통장을 나눠 사용하고(통장 쪼개기), 신용카드를 조심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모두 이 맥락에서 출발해요. 행동경제학에서는 ‘심리적 회계(Mental Accounting)’라고 부르는 개념이에요.

얼마 전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됐죠. 만기가 5년으로 일반적인 예·적금보다도 긴 편이지만 매달 최대 70만 원을 만기까지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약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청년도약계좌도 심리적 회계의 개념으로 접근해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입 후 청년도약계좌로 돈이 자동이체되는 일자를 월급일 최대 3일 이내로 설정해서 ‘선저축 후지출’이 이뤄지도록 만들어둡니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을 쓰는’ 개념이라 소비의 유혹이 저축을 방해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이때 최대 납입금액인 70만 원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금입니다. 자동이체일 외에도 내가 원하는 때 추가 납입이 가능하죠. 이 점을 이용해 매달 목표 저축 금액의 80%를 자동이체일에 나가도록 하고 다음 월급일 전 남은 생활비를 추가 이체하는 방식으로 100%를 채울 수 있어요.

만기까지 5년을 기다리는 동안 큰돈 쓸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많은 분이 이런 상황에서 적금을 해지하곤 하는데요.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혜택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상품을 건드리지 않도록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둬야 해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초기에 매달 20만 원 정도를 다른 적금으로 저축해 비상금을 만들거나 성과급이 나올 때 바로 비상금 통장으로 이체하면 됩니다.

만기 후 큰 금액의 돈을 수령하면 ‘어딘가에 써야 해’라는 충동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충동을 가라앉히는 게 중요해요. 보상의 개념으로 50만~100만 원 정도를 따로 빼두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에 묶어둔 뒤 계획을 세워보세요. 성취감을 느끼면서 충동적인 지출을 방어해 냉정하게 다음 스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피티는 ‘선저축 후지출’의 돈 관리 시스템을 일찍 구축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말하곤 해요. ‘시간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은 큰돈이 아니지만 3년, 5년이 지나면 계좌에 쌓인 돈이 전혀 다를 테니까요. 그 시간들이 누적되면 같은 시작점에 있던 이들보다 훨씬 멀리 도약해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청년도약계좌가 많은 청년에게 5년이라는 시간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었으면 해요. **K**

어려운 시간을 겪고나서 알게 되는 것들

이수영의 〈웰컴〉은 평범한 분식집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림을 보니 김밥, 떡볶이, 튀김, 핫도그 등을 팔고 있는데요. 김밥을 썰고 있는 젊은 주인에게 검은 피부의 외국인 여성 두 명이 와서 무엇인가를 주문합니다. 두 사람의 차림새만 보면 여행자인지 한국에 사는 다문화가정의 주인공인지 쉽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머리를 묶은 여성의 장바구니에 대파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면 다문화가정일 수도 있지만 선글라스에 샌들을 신은 여성을 보면 여행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경우든 외국인 '손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웰컴'입니다. 〈웰컴〉은 요즘 같으면 흔한 풍경을 그린 작품이지만 보는 순간 웬지 가슴이 찡합니다. 코로나19로 거리가 텅텅 비었던 시절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거리가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고 보니 반가움이 더합니다. 무엇이든 없어봐야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정욱 미술평론가



이수영, 〈웰컴〉, 한지에 채색, 30×45cm, 2012년





2023.06.26-07.02

No.710

정책주간지

gonggam.korea.kr

K-공감

발행일 2023년 6월 26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발행인 박보균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
 (044) 203-3016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 삼화인쇄
구독 문의 및 주소 변경(수신자 부담)
 (080) 851-0183

〈K-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커버스토리

“2030년 부산에서 만납시다”

- 윤 대통령, BIE 총회서 영어 PT로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
- 한·프랑스 정상회담 “양국 협력 확장”
- 유럽 첨단기업 6곳 ‘한국에 9억 4천만 달러 투자’ 약정
- 윤 대통령, 베트남 국빈 방문… 역대 최대 경제사절단 동행

06



표지사진 뉴스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K-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i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세대공감 MZ세대의 생각

- 01 박진영**
 ‘5년 뒤 후회하지 않으려면’

공감갤러리

- 02 이수영**
 〈웰컴〉

정책 돋보기

알쓸정책

- 18** 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외

돈 되는 정책

- 23**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휴게실 라운지

- 2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

해외문화원 24시

- 26** ‘한류타운 in 벨기에’ 4만 7000명 몰렸다

보훈의 달

- 27** 영웅들에게 새 제복을! 집배원이 찾아갑니다



28



38



42



52

정전 70주년

- 28 육군사관학교 생도, 6·25 격전지를 가다

인터뷰

- 32 정범진 교수가 말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진실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대한민국

- 36 '65~74세' '75세 이상'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

K-피플

- 38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 대상 '청성'

정책현장

- 42 인천 영종도 왕산해수욕장 '알줍캠페인' 현장을 가다

청와대 이야기

- 46 서울의 타임캡슐 서촌 골목마다 사연 가득

탄소발자국 따라가기

- 49 폐장난감에 새 삶을! 그린무브공작소 이채진 대표

문화현장

- 52 민간정원으로 초대합니다

숨은 국대 찾기

- 56 한복체험 문화 만든 '한복남' 박세상 대표

문화

- 59 6070 이야기 배틀 '오늘도 주인공'의 최종 승자는?

웹툰 임남택 변호사의 공감하는 法

- 60 청년도약계좌 출시

몸건강 마음건강

- 61 '근거중심의학'과 '나만의 비법'

함께 즐기다

- 62 공연 루체른 심포니&임윤찬 외

- 64 독자 공감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0일(현지시간) 열린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진행된 2030 세계박람회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BUSAN IS READY

“완벽한 엑스포 만들겠다” 윤 대통령 영어 PT로 글로벌 표심 공략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자 우렁찬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 곧바로 무대를 가득 채운 전광판에 걸그룹 에스파(aespa)의 멤버 카리나가 등장해 인류를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묻고 청중이 투표하는 장면이 펼쳐졌다. 6월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현장에서 펼쳐진 한국의 프레젠테이션(PT)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가 BIE 회원 179개국을 상대로 PT를 했다. 한국 차례에서는 카리나의 진행에 맞춰 전 세계에 ‘말춤’을 유행시킨 ‘강남스타일’의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 도시계획 전문가 진양교 홍익대 교수, 어린이 디지털 교육 전문가 이수인 에누마 대표가 연단에 올랐다.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주자로 나선 윤 대통령의 영어 연설이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실권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PT를 했고 이탈리아의 행정수반인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국가원수가 직접 나서 힘있게 진행한 연설은 무게감이 남달랐다.

변화와 연대, 미래를 구현하는 엑스포

윤 대통령은 엑스포의 의미를 되짚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는 교역뿐 아니라 인류가 당면한 위기와 도전에 해결책을 모색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전쟁과 분규, 대량살상무기와 테러, 디지털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 기후위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차 문제를 일일이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인류가 당면한 도전과제를 해



(왼쪽) 진양교 홍익대 교수가 6월 20일(현지시간) 열린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세계박람회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하고 있다.
(오른쪽)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 무대에서 착용한 선글라스를 끼고 PT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소개한 부산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입하는 관문이자 대양으로 나아가는 도시”다. 또 “도전의 도시이자 미래의 도시”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펼쳐지는 엑스포가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이 환상적인 교류의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윤 대통령은 70여 년 전 전쟁으로 황폐화됐던 대한민국이 첨단산업과 혁신기술을 가진 경제강국이 됐으면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받은 것을 국제사회에 보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총 1258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의 연설에 따르면 부산엑스포는 문화 엑스포를 구현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에서는 “모든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받고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대접받을 것”이라며 부산

엑스포는 “모든 나라가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기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박람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10개 이상 회원국에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 지원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엑스포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에게는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 더 큰 꿈과 비전의 세상을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엑스포에서 세계 청년들이 인류 공동체로 함께 협력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참가국들에 대한민국이 이미 1993년 대전, 2012년 여수에서 두 차례 인정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사실을 상기시켰다. 한국은 1988년 하계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18년 동계올림픽을 모두 성황리에 치러낸 국가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준비된 후보국”이라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최고의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 완벽하게 투자해왔다”며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박람회를 만들 것”이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서도 “힘 모아 부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1월 에펠탑이라는 대표적인 박람회 유산을 자랑하는 이곳 파리에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최종 투표가 진행된다”며 “대한민국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온국민이 하나가 돼 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인류가 당연한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으로서 세계 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관,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염원하는 박람회 유치를 위해 프랑스 동포들께서도 당연히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박람회 유치는 BIE(국제박람회기구) 회원 179개국에서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하는 과정이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며 “우리가 이것을 유치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글로벌 외교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프랑스 순방은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후 첫 순방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은 모국과 여러분을 더욱 긴밀히 연결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가 돼 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며 동포들에게도 “모국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을 비롯해 한국계인 플뢰르 펠르랭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 세드릭 오 전 경제재정부 및 공공활동회계부 디지털담당 국무장관, 피아니스트 백건우, 박지윤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라고 말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시민, 모든 정당들, 그리고 세계 각지의 750만 재외동포가 모두 한마음으로 부산엑스포를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가 “경쟁의 논리에서 연대의 가치로 우리의 관점을 전환한 엑스포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은 준비됐고 우리는 모두 하나”라고 말하며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K-팝과 한옥, 교육

윤 대통령이 직접 참가한 이번 PT는 4차 PT다. 2021년 12월부터 세 차례 PT가 진행됐지만 4차 PT의 의미는 남다르다. 11월, 개최지가 결정되는 5차 PT는 투표할 곳을 정해놓고 진행되는 것이니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PT라는 점에서다. 이에 정부는 4차 PT에 많은 공을 들였다.

첫 번째 연사로 등장한 싸이는 청중의 환호를 받으며 연단에 올랐다. 싸이는 “파리에 머물 때면 에펠탑을 마주한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2012년 2만 명의 사람들과 제 노래 ‘강남스타일’로 플래시몹을 했던 추억이 떠오른다”며 “다른 언어를 쓰는 우리가 그 큰 행사에서 하나로 뭉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처럼 2030 부산엑스포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싸이는 한국의 성장을 강조했다. “한국은 비범함처럼 다른 장르를 융합해 독특한 것을 만들어 낸다”며 “여러분이 듣는 음악부터 여러분이 보는 쇼, 스마트폰, 자동차, TV까지 한국의 영향력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싸이는 연설을 하면서 “저를 알아보기 힘든 분들이 계실까봐 끝나기 전에 이걸 한번 껴보도록 하겠다”며 ‘강남스타일’을 불렀던 당시 무대에서 착용한 선글라스를 꺼내 썼다. 객석에서는 웃음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유쾌하게 마무리된 싸이의 연설에 이어 진양교 교수가 무대에 올랐다. 진 교수는 박람회장의 콘셉트와 디자인 등 마스터플랜을 총괄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1일(현지시간)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리셉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부산엑스포에서 잉태되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축 전문가로 서울 청계천 복원이나 올림픽공원, 월드컵공원 등의 설계에 참여한 바 있다. 진 교수는 먼저 “부산엑스포의 비전은 한국의 오랜 전통인 자연·인간·기술의 화합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흙, 나무, 돌로 이뤄진 한옥은 이런 화합을 구현한 것”이라며 “한옥은 엑스포 공간의 디자인을 포함해 엑스포의 주제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2030 부산엑스포 박람회장의 디자인 콘셉트가 ‘리어스(Re-Earth, 다시 지구)’라고 밝혔다. 박람회장은 부산 북항은 한때 한국에서 가장 분주한 항구였지만 지금은 폐건물과 버려진 기계가 놓인 곳이 됐다. 진 교수는 “우리의 계획은 오래된 산업화의 잔해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듀테크(교육기술) 스타트업인 ‘에누마’의 창업자인 이수인 대표가 차례를 이어받았다. 에누

마는 교육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취약계층 아이들이 기초학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에누마에서 개발한 앱 ‘킷킷스쿨’은 2019년 개발도상국의 문맹 퇴치를 위해 개최된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 대회’에서 공동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표는 “전쟁 중에도 우리 부모님들은 학교를 짓고 교과서를 인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뒀다”고 소개하며 “교육은 한국의 성장과 회복의 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부산 이니셔티브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 정부는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후변화, 디지털 환경 개선 등 다양한 글로벌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며 “개인, 기업 또는 국가가 단독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0 부산엑스포가 글로벌 파트너십의 상징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완벽한 PT였다”는 평가를 받은 4차 PT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유치전을 이어나갔다. 윤 대통령은 6월 21일에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리셉션’에 참석했다. 공식 리셉션은 후보국이 한 번씩 전체 회원국 대표단을 초청해 여는 행사다.

리셉션에서 한국은 PT의 테마이기도 했던 ‘문화 강국’을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해양도시 부산을 표현한 미디어아트 작품과 박람회장을 가상현실(VR)로 체험할 수 있는 UAM(도심항공모빌리티) 모형이 전시됐다. 비보이팀, 뮤지컬 배우의 공연이 이어졌고 한식 전문점에서 제공하는 퓨전 한식과 한국 술이 식탁에 올랐다.

예상 인원보다 두 배 많은 400여 명의 참석자가 몰린 리셉션에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고 더 높은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엑스포의 비전을 부산에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에서 잉태되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효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0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뉼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북핵 위협 공동 대처 첨단기술·미래 전략산업으로 협력 확장할 것”

윤 대통령·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에마뉼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6월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협력을 첨단기술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로 확장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저와 마크롱 대통령은 실질적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우주, 항공 등 미래 전략 분야의 협력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프랑스는 대한민국의 오랜 친구”라고 말했다. 프랑스가 6·25전쟁 당시 도

와준 우방국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낮선 나라, 낮선 국민을 위해 3421명의 프랑스 참전용사들이 치른 고귀한 희생을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도움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6위, 또 수입시장 점유율 8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양국 간 교역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사실을 짚으며 미래 양국 관계의 청사진을 그렸다. “세계가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직면한 지금 한·프랑스 양국 간의 협력은 첨단기술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로 확장돼나가야 한

“국적 불문 청년 혁신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0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로 불리는 프랑스 파리 스테이션F를 방문해 ‘한·프랑스 미래 혁신 세대와의 대화’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의 환호 속에 등장한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연대정신을 높이 샀다. 윤 대통령은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자유와 연대에 기반한 끊임없는 혁신이 요구된다”며 “무엇보다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이 자유주의와 국제주의에 기반한 혁신 마인드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청년들이 스테이션F에서 스타트업 꿈을 키우고 프랑스 인재들이 한국 기업의 인큐베이팅을 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은 미래가 이미 우리 앞에 성큼 와 있음을 보여준다”며 “외국 청년이 한국에서 원활히 창업하고 한국 청년들이 해외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지원을 국내 활동에 한정하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룩산느 바르자 스테이션F 대표, 세드릭 오 유럽우주국 고위자문단 위원, 프랑스 현지 스타트업인 오메나의 박하현 공동창업자 등을 비롯해 300여명이 참석해 국제 연대와 청년층 혁신 지원 등에 대한 토의를 이어갔다. 참석자 중 네이버 프랑스 직원인 앙젤 빌리앙은 유창한 한국어로 서울대에서 1년 교환학생을 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외국 청년들이 한국에서 쉽게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외국 연구자를 위한 프로그램, 외국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중”이라며 “국적을 불문하고 청년의 협력과 혁신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위한 것”이라고 호응했다.

이날 윤 대통령 좌석 앞에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홍보하는 캐릭터 ‘부기’ 인형이 놓여 눈길을 끌었다

다”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도 “우리는 다수 분야에서 미개척된 협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에너지,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 원전, 우주, 방위, 항공 분야 등에서 협력을 공고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앞장서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프랑스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을 적극 펴나갈 것”이라며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양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동일한 포부를 공유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프랑스의 목표와도 합치된다”고 동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에 대한 도전”이라며 “대한민국은 차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해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에 “프랑스가 한국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해도 좋다”며 나아가 “북한 주민의 명백한 인권 침해 역시 지속적으로 단호히 규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과 프랑스 관계는 문화 분야에서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청년들이 한국에 대한 무한한 동경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에서 K-팝의 엄청난 인기를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며 “프랑스 문화도 한국에서 동일한 열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공동언론발표를 마치고 양 정상은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 단독 환담을 이어나갔다. 공식 양자 방문은 아니었지만 프랑스 측은 공식 환영식과 오찬을 펼치고 군악대 연주로 환송하는 등의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인 ‘스테이션F’에서 열린 ‘한·프랑스 미래 혁신 세대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6월 20일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행사로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가진 브리핑에서 “양국은 경제안보 공조와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심화시켜나가기로 했다”며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를 계속 확대해나가는 데 있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신규 무역 입법 조치들이 한국 기업에 차별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마크롱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양 정상은 우주 협력, 청정에너지 기술 협력, 청년 스타트업 교류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이버위협 대응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는데 대통령실은 “2024년 7월 파리 하계올림픽을 계기로 사이버안보를 서로 구축하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에 있어 양국 정보당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글로벌 무대에서 공조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차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과 상임이사국으로 국제 안보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적극 실시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프랑스를 비롯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그리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 또 양 정상은 2024년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날 뜻을 모은 협력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X] 김효정 기자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 위한 국제기구 설치 제안”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며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유엔 산하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데이터와 AI(인공지능)로 대표되는 디지털은 우리가 그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과정과 결과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중대한 사회적 리스크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디지털은 프랑스혁명 사상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해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 원칙을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적 가치로 존중되고 인류의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1일(현지시간)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 필요성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이번에도 9억 4천만 달러 투자 약정 이끌어냈다

윤 대통령 ‘유럽지역 투자신고식’ 참석, 대규모 투자 유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에서 9억 4000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6월 21일(현지시간) 열린 ‘유럽지역 투자신고식’에 참석해 6개 유럽지역 첨단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실을 밝혔다.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하기로 한 기업은 이메리스(프랑스), 유미코아(벨기에), 콘티넨탈(독일), 에퀴노르(노르웨이), CIP(덴마크), 나일라캐스트(영국)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일일이 악수한 다음 기업 이름을 하나씩 호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유럽의 경제 협력 관계는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 정부는 외국 투자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투자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며 “투자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와 한국 정부에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유럽 6개 첨단기업 투자 계획 밝혀

이날 유럽지역 6개 첨단기업이 투자 계획을 밝힘에 따라 상반기 외국인 투자 신고금액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됐다. 2023년 상반기에 신고

된 외국인 투자 금액은 165억 4000만 달러다. 이는 기존 상반기 최대 실적인 2018년 157억 5000만 달러를 갱신한 것으로 2022년 동기 대비 75%나 증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2023년 들어 정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유치한 외국인 투자 신고금액도 31억 4000만 달러에 달한다. 상반기 전체 신고금액의 19% 정도 되는 규모다. 윤 대통령이 순방하는 동안 열린 투자신고식도 네 차례 있었다. 2022년 9월 미국 뉴욕에서 11억 5000만 달러, 2023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3억 달러, 4월 미국 워싱턴에서 19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자유주의와 국제주의 등 윤석열정부 정책기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노력, 세일즈 외교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투자신고식에 유럽 전역의 CEO가 직접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보다 투자 규모를 증액하는 등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세일즈 외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마치고 CEO들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CEO들은 각 기업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도성을 높이는 카본블랙을 생산하는 이메리스는 생산시설 투자 계획을 밝혔다. 알레산드로 다짜 CEO는 “삼성, LG, SK 등 한국 기업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으로 수출을 위해 2단계에 걸쳐 한국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유럽지역 투자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스스

아 시장의 생산능력을 2배 이상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차전지용 양극재를 생산하는 유미코아는 25년 전 한국에 진출해 큰 규모의 생산공장 and 연구개발(R&D)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부트기요트 유미코아 부회장은 앞으로 생산공장 증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배터리 산업 육성전략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 산업을 계속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메리스와 유미코아 같은 세계적인 이차전지 소재 기업의 한국 투자를 통해 이차전지 세계 1위인 한국 기업들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면서 "정부도 이차전지를 반도체와 더불어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 기업인 대통령실 방문 환영… 문 열어놓겠다”

전기차 부품을 만드는 콘티넨탈의 마틴 쿠퍼스 콘티넨탈코리아 대표는 한국과 독일 간 140년의 양자관계에 기반해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다른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 공장의 생산능력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사마호메드 나일라캐스트 CEO는 조선과 자동차 소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한국에 설립할 것이라

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동차와 조선은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으로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콘티넨탈과 나일라캐스트의 한국 투자를 통해 한국 자동차·조선산업의 기술진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야콥 베루엘 폴슨 CIP CEO와 온 에릭 라인하르트센 에퀴노르 이사회 의장은 윤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와 유연성에 감사를 표하며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풍력 시설 설치와 관련해 지방정부와의 협의 등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외국기업 투자는 한국 입장에서는 자본, 기술뿐 아니라 선진 기업문화가 들어오는 것”이라며 “투자 진행 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통령실에 알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 기업인의 대통령실 방문을 언제든지 환영한다”며 “항상 문을 열어놓겠다”고 강조했다. **김**

김효정 기자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베트남 동포 간담회
2023.6.22.(목) 하노이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2일 베트남 하노이 한 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동포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윤 대통령 베트남 국민 방문

“새로운 미래 30년 향한 출발점”

프랑스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6월 22일 베트남을 국민 방문했다. 이번 베트남 국민 방문은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양자 차원의 첫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 회담을 개최하는 데 이어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쯙 공산당 서기장, 팜 민 쥘 총리, 브엉 딕 후에 국회의장 등 최고지도부와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 국민 방문을 앞두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칙 기반 질서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베트남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월 21일 공개된 베트남 국영 통신사(VNA)와 서면 인터뷰

에서 “한국은 베트남과 해양안보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계 시장에서 검증된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위산업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확대해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힘차게 시작하는 첫해”라며 “이번 국민 방문이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협력 범위를 제조업 위주에서 금융·유통·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로 고도화하고, 방식도 강점을 활용한 수평적 분업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베트남 산업기술 역량 개발을 위한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번 베트남 국민 방문에 동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전방위로 힘을

보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 국민 방문 첫날인 6월 22일 정상회담에 앞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베트남 동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베트남 ‘국민 영웅’ 반열에 오른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감독을 비롯해 재외동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베트남에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많은 17만 명이 넘는 동포가 거주하고 1992년 한·베트남 수교 때와 비교해 양국 간 교역은 175배(877억 달러), 상호 방문객은 2400배(480만명)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기까지 양국 관계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12월 응우옌 쉰언 폭 전 주석 방한 이후 이렇게 빨리 베트남을 방문하게 된 것은 어느 때보다 깊어진 양국의 우호관계를 보여준다”며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가꿔나가는 데 있어서 베트남은 대한민국의 핵심 협력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의 방문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미래 30년을 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 출범을 언급하며 “모국과 여러분을 더 긴밀히 연결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가 돼 재외동포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아울러 “차세대 동포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지역에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모국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베트남 차세대 동포 교육에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하노이 국가대학교에서 열린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와의 대화에 참석했다. 또 K-산업 쇼케이스 및 무역상담회, K-푸드 박람회 등을 둘러보며 현지에 진출한 한국 제품을 살펴보고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한·베트남 문화교류의 밤과 동행 경제인 만찬 간담회로 첫날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

강정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월 22일 베트남 하노이 국가대학교에서 열린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뉴스스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베트남 국민 방문에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205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앞서 6월 13일 브리핑에서 “이번 베트남 국민 방문에는 민간 주도로 구성된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며 “이는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로,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고 우리 수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81%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등 대기업 총수 등 주요 기업인들이 총출동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대 경제단체 회장도 모두 동행했다.

베트남 경제사절단은 대기업 24곳과 중견기업 28곳, 중소기업 138곳, 경제단체 6곳, 협회·조합 6곳, 공기업 3곳 등 총 205곳으로 구성됐다. 유통·금융·법률·의료·정보기술(IT)·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기업이 대거 포함됐다. 기존 제조업 중심 교류에서 서비스와 인프라 등으로 협력 범위를 고도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함께하는 만큼 윤 대통령은 여러 경제행사에 참석해 ‘경제외교’를 펼쳤다.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에 이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자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가다. 한국과 베트남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3·중1 ‘책임교육학년’ 지정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수업을 혁신한다.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는 예정대로 시행하는 한편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해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6월 21일 발표했다.

먼저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시기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수업을 혁신한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을 활용해 학생 맞춤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한다. 다만 도입 시기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만큼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문제점들을 보완해 추진할 방침이다.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학생의 개별 진로·학업설계 지도를 강화하고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운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는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지원한다. ‘학교-교육청-외부기관’으로 구성된 3단계 평가체계를 만들어 과목 확대에 따른 평가 신뢰도도 높인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불안이 큰 만큼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 정보를 대학에 확대 제공해 대입개편 방안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이 예정됐던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존치한다. 공교육 안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다만 지역·학교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율형공립고 2.0’을 함께 추진한다.

행정 업무를 경감하는 등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수업역량 강화 연수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수업방해 행위에 교사가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특히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두려워해 학생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생활지도권을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공교육 혁신이 필요한 만큼 학교 현장과 교육당국이 긴밀히 협력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국가책임 기초학력·기본 인성 교육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 혁신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 확대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 학력 진단 및 맞춤 학습 지원 ② 사회·정서 역량 측정 및 지원 ③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② 디지털 선도학교·디지털 튜터 확대 ③ 교원 전수 대상 역량 강화 연수 지원 ④ 질문하는 학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 과목 선택권 확대 ②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③ ‘자율형공립고 2.0’ 추진 ➡ 학교 운영 자율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행정 업무 부담 경감 ② ‘생활지도권’ 보호 등 수업 방해 행위 대응 장치 마련 ③ 잘 가르치는 교사 우대 및 수업 연구 활성화

자료: 교육부

매입임대주택 4441호 입주자 모집

청년 2232가구·
신혼부부 2209가구에
시세 30~80% 수준 공급

국토교통부가 6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두 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모두 4441호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공급하며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만 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나눠 공급한다.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상담 창구에 2022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접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뉴시스

부부가 아닌 일반 혼인가구도 자격요건을 갖추면 Ⅱ 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LH 청약센터누리집(apply.lh.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일부(682호)를 모집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의 모집 요건은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8월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각장애인 보호자 없이도 은행 이용 쉬워진다

시각장애인 전담창구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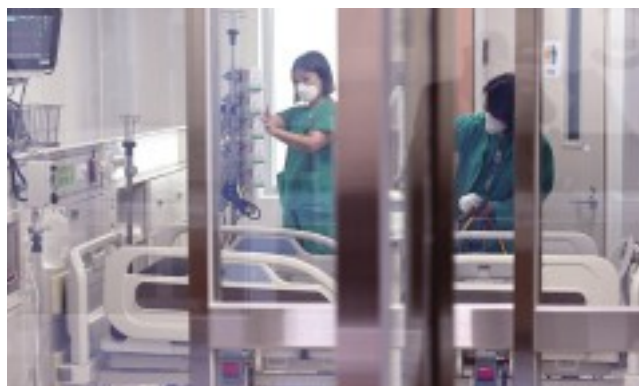
금융위원회가 시각장애인 혼자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전담직원은 시각장애인이 보호자의 도움 없이도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대출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서류작성을 보조할 수 있다. 은행은 QR코드나 음성 안내 등을 통해 계약서류 내용을 음성으

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점자로 된 보안카드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계약서류 제작을 확대하기로 했다. 불완전 판매 등 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과정은 녹취할 수 있게 된다.

각 은행은 6~7월 중 모든 영업점에서 이 같은 매뉴얼에 따라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면 실시가 어려운 일부 은행은 시각장애인 거점점포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입원 진료 못하면 상급종합병원 취소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에 감염병 대응역량 등 포함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감염관리센터 음압격리병동에서 의료진이 기기를 점검하고 있다. 센터는 국내 민간병원 최초로 2022년 설계된 감염병 전문 독립 건물이다. 사진 뉴스시스

2024년 1월부터 국내 상급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에 대해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6월 30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을 말한다. 필수요료를 포함해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이 되면 일반종합병원보다 5% 포인트 높은 30%의 가산수가를 받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제4기 계획을 통해서도 전국 45개 의료기관이 지정됐다.

제5기 지정기준을 보면 중증질환 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이 높아졌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2024년 1월부터 필수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상시

입원환자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입원진료 실적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입원환자 중 중증에 해당하는 전문진료질환군 환자 비율은 기존 30%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강화된다. 반대로 입원환자 중 단순진료질환군 환자는 14% 이하에서 12% 이하로,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는 11% 이하에서 7% 이하로 제한한다. 특히 중증응급질환·희귀질환 등의 입원중증환자가 많을수록 가점을 줘 중증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하도록 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과 국가감염병 대응 역량에 관한 지표도 새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는 300명당 1명씩 뒤야 한다.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은 10% 이상, 음압격리병실 병상 확보율도 1%를 넘어야 만점이다. 마지막으로 6기 상급종합병원을 평가하기 위한 예비평가 지표도 공개됐다. ▲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간호사 교육전담 인력 확보율 등 네 가지 지표에 대해서는 각각 예비평가를 실시한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서류 평가와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올 12월 말 상급종합병원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 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부(033-739-5841~4)로 문의하면 된다.

이젠 신분증 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빠르면 내년부터 사용 가능**

2022년 7월부터 발급을 시작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진 뉴시스



앞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편의점에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성년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편리하게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뜻한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 온·오프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등의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스마트기기)

만 저장할 수 있게 하고 생체인증 등의 방식으로 본인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또 스마트폰 분실에 대비해 전용 콜센터 등을 운영해 분실신고 때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 및 도용을 예방한다. 아울러 신원 증명 시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 가능하도록 한다. 가령 미성년자 여부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주소를 확인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게 한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면 온·오프라인에서 신원확인을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올여름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사라진다

**야영·취사용품도 방치 안돼
해수욕장법 개정안 시행**

올여름엔 해수욕장에 장시간 텐트를 설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사라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 무단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월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다.

기존 해수욕장법도 물건 방치 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지만 통상 1~6개월이 걸려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지정된 장소 외에 알박기 텐트를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즉시 철거할 수 있다. 이밖에 야영·취사용품과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지정한 물건 등이 ‘제거 대상 물건’에 포함됐다.

고혈압·기억력 저하 치료제품 ‘혁신의료기기’ 지정

우선심사 등 밀착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혈압 및 경도인지장애 치료를 위한 국내 개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디넥스’는 약물치료 효과가 없는 저항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 치료하는 국내 첫 제품이다. 전극 카테터(도뇨관)를 신장동맥에 삽입한 뒤 교감신경을 차단해 고혈압을 치료하는 원리다. ‘코그테라’는

기억력이 저하된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제품이다. 병원에서 이뤄지던 인지중재치료를 가정에서 가능하게 해 기술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식약처는 두 제품을 포함해 총 3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우선심사 등을 통해 새로운 치료기술이 신속히 제품화되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불법 유통 개인정보 내 손으로 잡아낸다

대학생 모니터링단 모집
온라인 게시물 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온라인에 불법적으로 떠도는 개인정보를 감시할 ‘대학생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모니터링단은 개인정보위의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 거래 게시물 탐지 활동’에 참여해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 게시물을 탐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활동을 통해 2022년엔 18만 1000건의 불법 개인정보 게시물을 적발, 이중 17만 2000건을 삭제했다. 30명의 모니터링단원은 기초교육을 받게 되며 우수 활동 단원 네 명에게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 등을 수여한다.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은 누구나 지원할



지난 4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 모습. 사진 뉴스스

수 있으며 6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음악에 재능 있는 공무원 도전하세요

‘2023 공무원 음악제’
가요·성악·연주·국악 등
4개 부문 공모

공무원의 예술적 자기계발과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2023년 공무원 음악제’가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7월 18일부터 8월 2일까지 가요·성악·연주·국악 등 네 개 부문에 대한 공무원 음악제 출품 작품을 공모한다. 참가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현직 공무원과 공무원(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직원이다. 대상 1개 조에는 국무총리상과 100

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여하며 금·은·동상 9개 조에는 인사혁신처장상과 30만~7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더불어 인사처는 수상자들과 함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능나눔 봉사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www.geps.or.kr) 게시판(공무원예술대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조윤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2022년 말부터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가 약 3000명에 이르면서 정부가 피해자 구제에 나섰는데요. 금융 분야에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전세대출
연체등록 유예
최대 20년까지
무이자 상환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우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갚지 못했다면 금융회사가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또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금은 분할상환할 수도 있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약정을 체결하면 최장 20년까지 무이자로 나눠 낼 수 있답니다. 당장 상환이 어렵다면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어요.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가계대출 규제도 1년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대출액 4억 원 한도 내).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넘어간 거주주택을 낙찰받았을 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100% 적용해줘요. 즉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더불어 비규제지역에 한해선 일반주택담보대출의 LTV를 기존 60~70%에서 80%까지 확대했어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배제해주니 소득이 적거나 부채가 많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걱정은 덜 수 있겠죠?

특례보증자리론을 이용한다면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특례보증자리론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대출해주는 상품인데요.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 3%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특별법 제정 이전에 높은 금리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증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 만기는 최장 50년, 거치기간은 3년까지입니다. 주택금융공사 누리집(www.hf.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콜센터(1688-8114)에서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환대출 취급 은행이 5월부터 5대 은행(우리·하나·NH농협·국민·신한)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전셋집에 계속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저금리 기금 대출로 갈아타기도 쉬워졌어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면서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살고 있다면 'HF' 보증서 전세대출을 살펴보세요. 대출한도는 2억 40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이고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연 1.2~2.1%를 적용받아요. 또 'SGI서울보증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주택도시보증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 설치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로 연락하면 전세사기와 관련된 각종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K**

조윤 기자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월세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됐다. 사진 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년 예산안에 적극적인 보육 재정투자 필요”

사진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는 6월 20일 서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간담회를 열어 보육서비스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 회장과 분과위원장들이 참석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실제 정책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그간 보육 지원체계 정비 및 관련 예산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육 현장의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원 미달 어린이집 지원, 대체 교사 확충, 장애아 보육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보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적극적인 보육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며 “2024년 예산안 편성 시 0세반 추가 비용지원, 보육료 단계적 인상, 장애아 보육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성욱 통신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프 미래 혁신 세대와의 대화’ 참석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6월 20일 프랑스 파리 스테이션 에프에서 열린 ‘한·프 미래 혁신 세대와의 대화’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프랑스의 대표 협력지구인 스테이션 에프에서 양국 청년들이 만나 연대와 혁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스테이션 에프 록산느 바르자 대표, 전 프랑스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 세드릭 오, 프랑스 스타트업 오메나의 박하현 대표를 비롯해 양국 청년 300여 명이 참석했다. 청년들은 청년 연대의 경험을 공유하고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다. 루에랑 김성식 대표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대해 묻자 이 장관은 글로벌 대기업과 협업을 통한 스타트업 지원,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해외 공동기금 등을 설명했다. 또한 11월 한국에서 개최될 ‘컴업(COMEUP) 2023’에 프랑스 스타트업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슬아 통신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전통시장 내 음식점에 위생등급제 도입”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6월 14일 최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예산상설시장을 방문해 영업자들을 격려하는 현판식에 참석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점수에 따라 위생별의 개수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매우우수는 별 3개, 우수는 별 2개, 좋음은 별 1개로 표시한다. 식약처는 충남 예산군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인 위생안심시장 조성현황을 점검하고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현판식을 계획했다. 예산시장 내 음식점 32곳 가운데 20곳이 위생등급을 지정받았다. 오 처장은 영업자들을 격려하면서 여름철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수칙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처장은 “예산시장을 방문하는 국민이 음식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노력해준 영업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예산시장의 사례가 전국 전통시장 내 음식점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는 첫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진희 통신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

“세계인에 감동 준 블랙이글스 자랑스러워”

사진 국방부



이종섭 장관은 6월 20일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조종사와 관계관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블랙이글스 조종사와 정비관, 항공촬영 담당 등 총 8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블랙이글스는 2022년 영국 ‘리아트(LIAT) 에어쇼’에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받은 데 이어 2023년 호주 ‘아발론(AVALON) 에어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5월 ‘말레이시아 국제 해양·항공전시회(LIMA) 2023’의 국제 에어쇼에서는 수준 높은 곡예비행을 선보여 많은 관중에게 찬사를 받았다. 이 장관은 블랙이글스 조종사와 관계관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 장관은 “여러분의 뛰어난 기량뿐 아니라 팀워크는 완벽했다”며 “조종·정비·촬영 등 전 요원이 하나가 돼 세계인에게 감동을 준 점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방외교사절단으로서 세계 각국에 대한민국 국군의 우수성과 방위산업 기술력을 알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우희 통신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비대면 진료 보완·발전해 제도화 준비”

사진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6월 1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진료 시범사업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복지부는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약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애플리케이션 업계, 전문가 등 자문단을 구성했다. 박 차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자문단의 의견을 경청한 뒤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론했다. 박 차관은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의 법적 한계를 고려해 재진 환자와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한 의료약자를 중심으로 추진했다”며 “자문단에서 제시되는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발전 시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권용환 통신원

이인실 특허청장

“지식재산 선도국가 위상 높이겠다”

사진 특허청



이인실 청장은 6월 14~1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6차 선진 5개 특허청장 회의(IP5)와 산업계 대표와의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지식재산 분야 G5를 뜻한다. 한국 특허청은 세계 4위에 해당하는 규모의 특허신청을 담당하는 선진 지식재산기관으로 유럽·일본·중국·미국 특허청과 함께 IP5를 설립했다. IP5 청장들은 산업계 대표와의 연석회의와 청장회의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 청의 노력을 소개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청장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 등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이 청장은 “경제발전의 선순환 체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의 85%를 담당하는 선진 5개 특허청 간 협력이 필수”라며 “2024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17차 IP5 청장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지식재산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재진 통신원

“K-팝 좋아요” ‘한류타운 in 벨기에’ 4만 7000명 몰렸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2년 만에 열린 한류 행사에 이틀간 4만 7000여 명이 몰렸다.

주벨기에유럽연합 한국문화원은 6월 17~18일(현지시간) 브뤼셀 시내 브루케르광장(Place de Brouckere)에서 열린 ‘한류타운 in 벨기에(Hallyu Town in Belgium)’에 총 4만 7000여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몰린 인파는 브뤼셀 전체 인구의 4.1%에 해당하는 규모다. 2년 전 행사 때와 비교해도 방문객이 약 18% 증가해 K-컬처의 뜨거운 인기를 느끼게 했다.

한·유럽연합(EU)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문화를 종합적으로 소개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행사는 한복 체험부터 K-푸드 쿠킹클래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달고나 게임’이나 ‘줄다리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 전통놀이까지 다양한 체험형 부스를 마련해 참가자들을 즐겁게 했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K-팝 콘서트’에는 가수 폴킴과 아이돌그룹 ‘온리원오브’, ‘첫사랑’이 무대에 올랐다. 국악밴드로는 ‘국악이상(GUGAK E-SANG)’이 출연했다. 벨기에 현지 댄스팀이 K-팝 커버댄스 공연도 했다. K-팝 콘서트에는 네덜란드, 스페인, 덴마크 등 벨기에 인접 국가에서도 팬들이 몰려들어 K-팝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팬들은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 일찌감치 공연장에 와서 약 2시간 진행된 공연 내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불렀다.

행사 기간 한국기업 40곳도 현지 소비자들과 만났다. 한국 화장품, 한식 등 일부 제품은 행사가 끝나기도 전에 완판됐다. 행사 전날인 6월 1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한 B2B(기업 간 거래) 수출상담회에서는 중소기업 16곳이 총 500만 달러(약 64억 원) 규모의 상담실적을 달성했다.

벨기에 방송사인 RTL벨기에는 저녁 메인뉴스에 행사 현장을 생중계로 연결했고 벨기에 유력지 <르 수아르>는 지면 한 면을 할애해 비중 있게 소개하는 등 이번 행사에 쏟아진 현지 언론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김재환 주벨기에유럽연합 한국문화원장은 “한류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행사와 연계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 윤소정 코리아넷 기자



(위) 가수 폴킴이 벨기에 브뤼셀 시내 브루케르광장에서 6월 17~18일(현지시간) 열린 ‘한류타운 in 벨기에’ 행사에서 관객들과 하트 모양을 만들고 있다. 사진 폴킴 인스타그램 갈무리
(아래) ‘한류타운 in 벨기에’ 행사에 마련된 한국 중소기업 부스에서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KOTRA

영웅들에게 새 제복을! 집배원이 찾아갑니다



(왼쪽) 6·25참전유공자들이 새로 제작된 제복을 입고 패션지 <GQ> 화보를 촬영했다.

(오른쪽)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전사자 12만 1879명을 기억하는 배지 달기 캠페인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 사진 국가보훈부

6·25참전유공자를 위한 새로운 제복이 차례로 주인을 찾아가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023년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확대해 생존하는 6·25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고 있다. 4월 10~26일 신청한 2만 2000여 명의 대상자는 6월 21일부터 직접 전달 받고 있다.

이번에 전달되는 제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초청한 오찬에서 6·25참전유공자 대표에게 수여한 것과 같다.

제복 전달은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이 직접 한다. 후배 제복 근무자들이 선배 영웅들의 자택을 방문해 제복을 전달하기도 한다. 학생, 학군단 생도 등 미래세대들이 제복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작한 사진집, 초상화 등도 증정한다.

참전유공자의 희생·헌신에 대한 존중과 감사를 전하는 사회 분위기도 조성해간다. 프로 스포츠 경기에 참전유

공자를 초청하고 KTX·SRT·고속도로 전광판 등에 홍보 캠페인을 병행한다. 패션지 <GQ>에 새로운 제복을 입은 아홉 명의 참전유공자 화보가 실린 것도 그 일환이다. 화보에서 참전유공자들은 제복 제작을 총괄한 김석원 디자이너와 서울 용산공원을 배경으로 촬영해 정전 7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6·25참전유공자라면 8월까지 제복 신청을 할 수 있다(콜센터 1899-1459). 7~8월경에는 제작 업체가 전국 참전유공자회를 방문하니 직접 물어보고 현장에서 신청도 가능하다.


전사자 12만 1879명 기억하기

한편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 대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도 6월 19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전사자 12만 1879명을 기억하는 캠페인은 참전전사자를 모신 함을 도포한 태극기 배지로 형상화됐다.

배지에는 호국영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표명하고 국민과의 굳건한 약속을 다짐하는 보훈의 참 의미를 담았다.

배지 달기에 동참하고 싶다면 NH농협은행과 GS리테일에서 신청하면 된다. NH농협은행은 6월 20일부터 애플리케이션(앱) 'NH올원뱅크'에서 배지를 신청하고 원하는 영업점에서 받을 수 있게 했다. GS리테일은 앱 '우리동네 GS'에서 신청 또는 6월 23일부터 전국 GS25 거점점포 187곳에서 선착순으로 현장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호국영웅의 제복 전달에 대해 "이를 계기로 과거·현재·미래의 영웅들이 기억되고 존중받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지 달기 캠페인에 대해선 "국가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웅 한 분 한 분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우리 사회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캠페인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수현 기자

육군사관학교 생도 6·25 격전지를 가다

고지마다 선배 전우의 피와 땀이 “군복의 의미 새삼 깨달았다”

육사 군사사학과 전공 생도들과 교수진이 강원 양구 을지전망대에서 편지봉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육군을 이끌어갈 육군사관학교(육사) 생도들이 6·25전쟁 73주년, 정전 70주년을 맞아 선배 전우들이 목숨 바쳐 싸웠던 격전지 현장을 찾았다.

6월 9~10일 육사 군사사학과(학과장 심호섭 소령) 교수진(8명)과 전공 생도 29명(2~4학년, 80~82기)은 6·25전쟁 당시 선배들이 피와 땀을 흘렸던 ▲편지봉전투 ▲피의능선 ▲단장의능선 ▲고성지구전투 ▲저격능선 ▲금성지구전투 ▲백마고지전투 현장을 찾았다. 생도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답사록을 만들고 현장에서는 전술 토의까지 이어갔다.

“군사사학과는 진짜들만 모였다”

6월 9일 오전 6시 30분 육사 제2정문에서 교수진과 생도들이 탄 버스에 올랐다. 생도를 가르치는 민간인 신분 교수 2명과 기자를 제외하곤 모두 전투복 차림이었다. 강원 홍천



을 지날 때쯤 생도들은 마이크를 잡고 각자 자신이 어떻게 군사사학과에 오게 됐는지를 밝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선배들이 군사사학과에 지원하는 것을 만류했다”고 했다. 학과 공부가 힘들기 때문이다. 군사사학과에서는 전쟁사와 군사전략을 배운다. 육사에서 가장 어려운 전공으로 꼽힌다. 장군을 많이 배출하는 전공 중 하나다.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동시에 군사사학과 출신인 적도 있었다.

신승민 생도(4학년)는 “군사사학과는 군대밖에 모르는, 싸워 이기는 방법만 관심을 두는 ‘진짜’들만 모인 학과”라고 설명했다.

강원 인제군청을 지날 때쯤 류의연 교수가 마이크를 잡고 ‘리빙스턴교’에 대해 설명했다.

“중공군 5월 총 공세(1951년 5월) 당시 인제지구 전투에서 리빙스턴 소위(미 10군단)는 적에게 기습을 받아 작전상 후퇴하려 했으나 폭우로 강물이 범람해 강을 건너지 못했다. 리빙스턴 소위는 많은 부대원을 잃었고 본인도 전투에서 중상을 입었다. 임종 직전 부인에게 ‘사재를 털어서라도 인북천에 다리를 놓아달라’고 유언을 남겼다. 그렇게 탄생한 다리가 리빙스턴교(1957년 설치)다.”

군사사학과 나종남 교수(육군 대령)는 중요 지점을 지날 때마다 역사·전술적 의미를 설명하며 “산과 강이 많은 우리 지형상 다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지나 편치불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을지전망대(해발 1000m)에 도착했다. 이곳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남쪽으로 1km 떨어진 곳이다. 날이 맑으면 전망대에서 2시 30분 방향으로 10km 떨어진 금강산을 볼 수 있다.

12사단 작전과장인 공문식 소령은 “편치불전투에서 승리한 덕분에 국군이 고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이곳은 북한 지역을 내려다볼 수 있어 우리에게 유리한 지형”이라고 했다. 이어 “이곳에서 1km 떨어진 곳에 북한군 GP(감시초소)가 있다”고 했다. 교수들은 지형을 설명하며 유사시 적 전차가 어떻게 기동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태극기 휘날리며〉에도 등장한 피의능선전투

을지전망대에서 내려온 생도들은 피의능선전투 전적비로 이동, 전술 토의를 시작했다. 피의능선전투는 가장 대표적

인 고지쟁탈전이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전투 장면이 피의능선전투다.

정인찬 생도(3학년)는 피의능선전투에 대해 “방어자는 고지를 요새화하고 공격자는 요새화를 극복하기 위해 백병전을 벌였다”며 “고지를 뺏고 빼앗기는 과정에서 쌍방의 병력 손실이 매우 컸다”고 말했다. 심호섭 교수는 “피의능선을 지키지 못했으면 양구가 위험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천 생도(4학년)는 단장(斷腸)의능선전투에 대해 설명했다. 피의능선전투에서 패하자 북한군은 북방 6km 떨어진 단장의능선으로 후퇴했다. 당시 전투에서 북한군·중공군에 맞서 미군·프랑스군이 많은 사상자를 냈다. 당시 신문기사에서 이 전투를 두고 ‘심장이 찢어질 것 같다(heartbreak)’는 표현을 썼고 이곳을 ‘단장의능선’이라고 불렀다.

나 교수는 “단장의능선전투를 계기로 미군의 전투 교리가



(위) 피의능선전투를 주제로 발표한 3학년 정인찬 생도.
(아래) 저격능선전투를 주제로 발표한 4학년 최부건 생도.



피의능선전투 전적비에서 선배 전우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는 육사 생도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선배 전우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대한민국의 생존을 책임지는 장교가 되겠다.”

바뀐다”며 “육군과 공군이 합동 작전을 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CAS(근접항공지원)가 발달하게 됐다”고 했다. CAS는 영화에 자주 등장한다. 지상군이 무전을 통해 공격 목표(좌표)를 알려주면 항공기가 이를 바탕으로 목표 지점을 정밀 타격하는 방식이다.

단장의능선전투는 단일 전투로는 최대 규모의 포탄이 사용됐다. 전차 포탄 6만 2000발, 박격포 12만 발, 항공탄 250톤이 사용됐고 CAS는 840회나 이뤄졌다.

강원 양양 기사문리로 이동했다. 이곳은 1950년 10월 1일 국군 3사단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해 북진을 시작한 지점이다. 나 교수는 ‘국군의 날’이 제정된 배경을 설명했다.

“38도선을 최초로 돌파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정했다는 것은 오해다. 광복 이후 해방병단(해군)이 1945년 11월 11일, 국방경비대(육군의 전신)는 1946년 1월 15일,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공군은

1949년 10월 1일에 창설됐다. 1953년 6·25전쟁이 끝난 후 군별로 기념일을 따로 치렀다. 기념일이 너무 많다보니 날짜를 한 날로 정하자는 의견이 1956년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이에 육군 항공대에서 분리돼 창설된 공군(10월 1일) 기념일을 국군의 날로 삼게 됐다.”

이튿날(6월 10일)은 강원 철원 15사단 승리전망대(해발 459m)에서 일정을 시작했다. 승리전망대에서 11시 방향에는 북한 지역인 오성산(1062m)이 있다. 오성산에서 남쪽 아래로 길게 늘어진 능선이 ‘저격능선(Sniper ridge)’이다. 미군이 적에게 저격을 자주 당해 그 이름이 붙었다.

42일 동안 12번이나 고지 주인이 바뀐 전투

저격능선전투를 발표한 최부건 생도(4학년)는 “당시 42일 동안 1km가 채 되지 않는 능선을 두고 고지의 주인이 12번이나 바뀌었다. 아군의 CAS는 2200회나 이뤄졌다”며 치열했던 당시 전투를 설명했다. 중공군과 인민군은 오성산을 지키고자 개미집을 연상케 하는 지하 방어진지를 구축했다.

1953년 7월 13일을 전후해 중공군이 최후 공세(금성전투)에 나서자 결국 국군과 유엔군은 저격능선 일대(상감령)를 빼앗기고 만다. 이 때문에 오성산은 휴전선 북방 비무장



(왼쪽부터) 최부건·박준서·신승민 생도(4학년), 김진용·정인찬 생도(3학년).

지대로 들어가고 말았다.

심호섭 교수는 “오성산을 확보했다면 우리 영토를 더 많이 넓혔을 것”이라며 “전쟁사를 통해 당시 상황과 지형을 함께 이해하며 교훈을 얻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생도들은 마지막 일정으로 강원 철원 북서쪽 12km 지점에 있는 백마고지전투 현장을 찾았다. 12차례 쟁탈전이 벌어져 7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지만 끝내 국군 9사단이 확보한 곳이다. 이 전투에서 아군은 포탄 21만 9954발, 중공군은 5만 5000발을 쏘았다. 포격으로 고지가 깎여나가 정상이하양게 변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백마가 누워 있는 것 같다고 해 ‘백마고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9사단의 별칭이 백마부대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백마고지는 전략적 요충지다. 철원 평야는 곡창지대면서 북한군이 남침을 위한 기동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 교수는 “국군이 백마고지를 지키지 못했다면 대한민국 영토는 10km가량 후퇴해야 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영토는 선배 전우의 헌신으로 지켜낸 땅”이라고 했다.

백마고지전투가 국군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야전훈련사령부(FTC)의 효과를 입증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당시 미군은 국군이 훈련 부족으로 인해 전투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고 판단했다. 이에 미 8군사령관인 밴 플리트 장군은 FTC를 설치해 국군을 재교육했다.

가장 먼저 국군 9사단이 훈련을 받았다. 국군 9사단은 미 3사단을 대신해 백마고지 전선에 투입됐는데 최초 전투에 서부터 중공군의 공격을 완벽하게 저지했다.

전적지 답사로 안보 현실 체감

육사 생도들은 백마고지를 끝으로 전적지 답사·전술 토의를 모두 마쳤다. 1년 뒤에 최전방에서 소대장으로 복무할 4학년 생도들은 “이번 답사로 적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안보 현실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위국헌신의 각오로 전략·전술을 고민하는 군인이 되겠다”고 밝혔다.

군사사학과 교수진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질 리더를 길러낸다는 사명감으로 생도들을 가르치겠다”며 “이번 답사가 생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의 적과 지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전쟁사는 중요하다”며 전쟁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준서 생도(4학년)는 “군사사학과에서 배운 전략·전술을 바탕으로 보병 병과로 진출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말했다.

보병 장교를 희망하는 김진용 생도(3학년)는 “이번 답사를 통해 사료와 현장을 비교하며 ‘내가 전투에 임한다면 어떻게 지휘할 것인가’를 상상했다”며 “실력을 키워 적과 싸우면 부하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신승민 생도는 보병이나 포병 병과로 진출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전적지 답사를 통해 지금 입고 있는 군복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됐다”며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선배 전우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대한민국의 생존을 책임지는 장교가 되겠다”고 했다.

정인찬 생도는 “전쟁사와 이번 격전지 답사를 통해 포병 화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알게 됐다”며 “향후 포병장교가 돼 미사일사령부와 같은 전략 부대에 근무하며 아군의 승리를 강력한 화력으로 뒷받침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부건 생도는 “군사·국가 전략을 열심히 공부해 대한민국 번영에 기여하는 전략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생도들은 모두 “선배 전우들이 흘린 피와 땀을 잊지 않겠다”며 “더욱 전문성을 갖춘 군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K**

이경훈 기자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에 대해 "과학적 수치에 집중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 과학적 수치에 답이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논란에는 낯선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베크렐(Bq)이라는 단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삼중수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다. 과학적인 설명 대신 자리 잡는 것은 우려다. ‘오염수를 방출한다’는 문장은 즉각적인 우려를 일으킨다. 검은 잉크가 맑은 물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동해바다로 흘러 들어올 것이라는 걱정이다. 그래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에서 자주 등장하는 베크렐이라는 단위는 방사능을 측정하는 단위다. 방사성 물질은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는데 방사선 방출 능력을 방사능이라고 한다. 이 방사능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베크렐이다. 시버트(Sv)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단위다. 우리 곁에 흐르는 강물의 삼중수소 농도는 1리터에 1베크렐 정도 된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받는 방사선량은 연간 3밀리시버트(mSv) 정도다.

삼중수소는 수소의 동위원소다. 동위원소란 주기율표상에 위치가 같은 원소라는 뜻이다. 양성자 수는 같고 중성자 수는 다른 원소를 말한다. 보통 수소의 핵에는 양성자 1개가 있는데 삼중수소에는 중성자 2개가 더 있다. 동위원소는 화학적인 성질은 같지만 물리적으로는 다르다. 즉 수소나 삼중수소 둘 다 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삼중수소는 수소와 달리 시간이 지나면 붕괴한다. 이때 방출하는 것이 방사선이다.

삼중수소는 약한 베타선을 방출하는데 이때 삼중수소를 인(燐)으로 둘러싸면 빛이 난다. 이것이 야광의 원리다. 보

통 야광 손목시계 하나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2억 베크렐 정도 되고 비상구 안내등에는 9000억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사용된다. 삼중수소는 자연 상태의 물이나 음식에도 포함되어 있다.

국제사회는 원전의 삼중수소 방류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리터당 1만 베크렐을 방류 상한 기준으로 삼는다. 만약 사람이 이 기준에 맞게 방류된 물을 1년 내내 마신다면 연간 0.5마이크로시버트의 방사선에 피폭당하는 셈이다. 연간 자연 방사선 노출량 3밀리시버트의 600분의 1이다.

이런 배경지식은 원자력 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만날 때 필요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과 관련해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 중 하나로 손꼽히는 그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오염수 방류가 우리 바다의 오징어와 바다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오염시킬 거라는 ‘가짜’ 두려움을 없애고 ‘진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정 교수는 지금의 논란에는 “과학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는 왜 생겨나나?

후쿠시마 원전에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당시의 핵연료의 잔해가 남아 있다. 이것을 냉각하기 위해 투입한 냉각수와 빗물, 지하수가 들어가 오염수가 발생한다. 오염수를 여러 단계 처리해 방사성 물질을 걸러낸다. 방사성 액체폐기물 처리시스템은 보편적인 설비로 우리나라 원전에도 있다. ALPS(다핵종제거설비)도 처리 과정의 하나다.



조양기 서울대 해양연구소장이 6월 1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오염수 해양 확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뉴스스

삼중수소가 5~7개월 뒤 동해 유입?

구로시오해류 타고 미국 연안 거쳐 한국으로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1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설명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표층에서 수심 5000m까지 물의 움직임을 모두 계산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르면 방출된 오염수 중 삼중수소는 4~5년 뒤부터 우리 바다로 유입돼 10년 후 우리 바다의 평상시 삼중수소 농도의 약 10만 분의 1 수준인 1㎡당 0.001베크렐 내외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핑에 참여한 조양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오염수가 방류되면 구로시오해류를 타고 미국 연안까지 흘러간다”며 “여기서 다시 남쪽으로 흐르는 시계방향 순환을 통해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유입되는 것은 10년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7개월 뒤 제주 연안에 오염수가 유입된다는 독일 연구진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후쿠시마 앞바다의 삼중수소 농도를 1이라고 봤을 때 약 1조 분의 1에 해당하는 낮은 농도의 값”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 정도는 한강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확산에 의해 완전히 희석된 후의 농도값과 유사한 미미한 수치”고 덧붙였다.

오염수가 발생하면 우선 방사성 농도를 측정하고, 처리과정을 거쳐 다시 방사성 농도를 측정한다. 충분히 낮아지지 않으면 처리과정을 반복해 처리수를 만든다.

처리과정을 거치면 삼중수소를 제외한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은 배출 제한치 이내로 걸러진다. 삼중수소의 농도를 리터당 6만 베크렐 이하로 낮춘 상태를 처리수라고 한다.

처리수를 곧바로 바다에 방류하나?

아니다. 처리수에 바닷물을 40배 섞는다. 그래서 리터당 1500베크렐 정도로 희석시킨다. 이 희석시킨 물을 배관을 통해서 1km 지점의 먼 바다로 방류한다. 이 물이 흘러 방류 지점에서 2~3km 떨어지면 처리수의 농도는 리터당 1베크렐 정도로 자연적으로 희석된다. 리터당 1베크렐이라는 수치는 우리나라 한강물의 삼중수소 농도와 같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가 하루 300톤씩 방류됐지만 우리 해역에서는 전혀 측정되지 않았다.

삼중수소는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삼중수소는 우주선과 지구 대기의 상호작용이나 방사선 붕괴를 통해 매년 일정량이 발생하고 없어진다. 지구상에서 매년 발생하는 삼중수소는 200g 이상이다. 현재 후쿠시마에 저장된 물에서 삼중수소만 모아 본다면 2021년 기준 2.2g이다. 동해바다에 내리는 비에 포함된 삼중수소가 연간 3g이다.

삼중수소수가 인체에 들어오면 2가지 방법으로 제거된다. 하나는 방사선 붕괴를 실제로 해서 없어지는 것, 하나는 신진대사에 의해 소화되어 소변으로 빠져나가버리는 것이다. 일부가 인체의 수소를 대체해서 남아 있는 유기결합은 2%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고농도가 아니라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해도 된다.

우리가 마시는 물에도 삼중수소가 들어 있다고 하던데.

2011년 원전 사고 당시 우리나라에서 측정된 최고 세슘-137 농도는 리터당 303마이크로베크렐이었다. 이 물을 하루 2리터씩 1년 동안 마셔도 방사선 수준은 엑스레이(X-ray) 한 번 촬영할 때 노출되는 방사선의 10분의 1 수준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며 마시는 담수에도 리터당 1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있다. 그만큼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는 리터당 1만 베크렐 이하다. 이미 충분히 낮은 수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환경방사능 수치 확인은 어디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누리집(iernet.kins.re.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환경방사능 정보’에서 실시간 환경방사능 수치를 얻을 수 있다. 국가환경방사능자료관리시스템(clean.kins.re.kr)을 통해서도 2001년부터 해양표층수, 어패류 등의 방사성 농도를 측정한 값의 확인이 가능하다. 해양환경정보포털(meis.go.kr)에서는 해양 방사성물질 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nfqs.go.kr)을 통해서도 생산단계의 수산물 방사능검사 결과를 볼 수 있다.

우리 일상생활의 리터당 1베크렐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해양 방류 외의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일본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배출기준 이하로 처리수를 방류하는 것에 대해 주변국이 뭐라고 할 수 없다. 자국의 통치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배출기준이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방식으로 방사성 액체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증발시켜서 수증기의 형태로 방출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계산해보니 바다로 방류할 때가 수증기로 방출할 때보다 방사선 위험이 1000분의 1 이상 낮았다. 두 경우 모두 낮은 수치지만 해양 방류가 더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AEA는 이미 5차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IAEA의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이 IAEA에 분담금을 많이 내서 일본 편을 든다거나 IAEA가 일본이 떠준 물만 검사했다는 식의 얘기는 IAEA의 미션 보고서(mission report)를 실제로 읽어봤다면 할 수 없는 얘기다. 보고서에는 독립추출(independent sampling)을 했다고 돼 있다.

IAEA 미션은 통상 원자력 활동에 대해 국제적인 점검을 받기 위해 요청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안전성에 대해 자발적으로 IAEA를 초청해 안전점검을 받고 의견을 듣는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지적받고 세계적인 수준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받는다. 일본이 IAEA 미션을 요청한 것도 같은 개념이다. 국제적·공개적으로 이 사안을 다루기 위한 조치였다고 본다.

일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도쿄전력(TEPCO)은 '처리수 포털 사이트'를 한국어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METI) 누리집에도 처리수에 대한 한글로 된 보고서가 올라와 있다.

오염수 방류가 다음 세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 잠재적인 것도 포함해 방류 기준을 결정한다.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1kg당 1만 80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우력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히기도 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포획됐다는 것은 정확한 보도가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내항에서 포획됐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오염수를 배출한 곳이 내항인데 수상생물로 인한 확산을 우려해 가두리 양식장처럼 그물로 입구를 막아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사진 C영상미디어

놓았다. 일상적인 어로 활동이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방사선을 감시할 목적으로 잡은 물고기다. 또 이 우력은 2011년도 사고당시 방사성 오염수 방류의 결과이고 지금 방류하겠다는 처리수와는 무관하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이 오염된다는 우려 때문에 국내에서 천일염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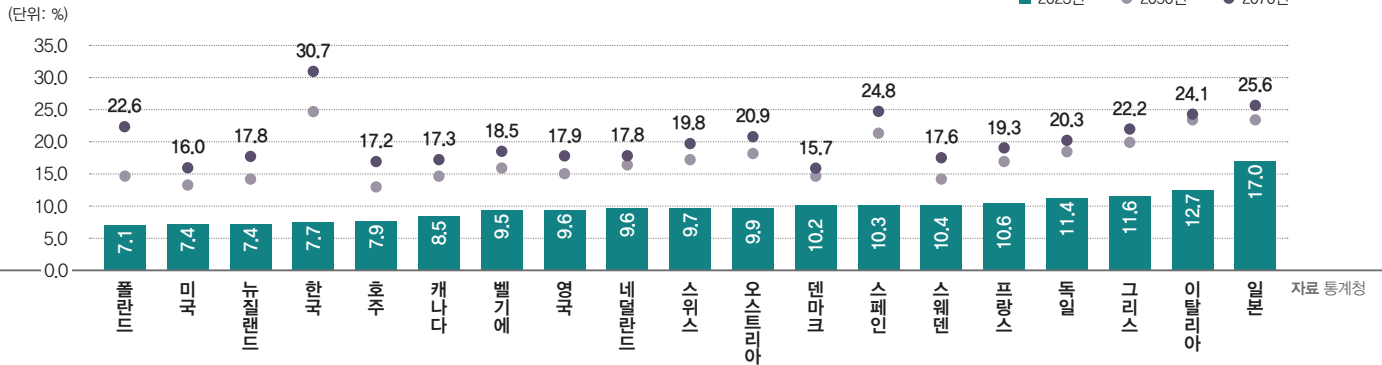
기본적으로 처리수에서 세슘, 스트론튬 등은 이미 제거돼 있다. 삼중수소만 미량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걱정거리가 아니다. 설령 삼중수소가 바닷물에 삼중수소수의 형태로 존재하더라도 물이 증발할 때 같이 증발한다. 간수를 제거하는 동안 반감기도 흐른다. 소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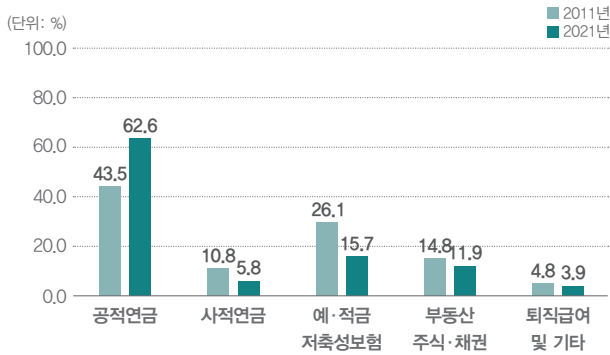
방류수 배출 농도가 얼마나 되나, 총 배출량은 얼마인가, 배출 허용 기준보다 높은가, 공개적이고 검증 가능하게 추진되고 있는가 등을 과학적 수치에 집중해봐야 한다. **☑**

김효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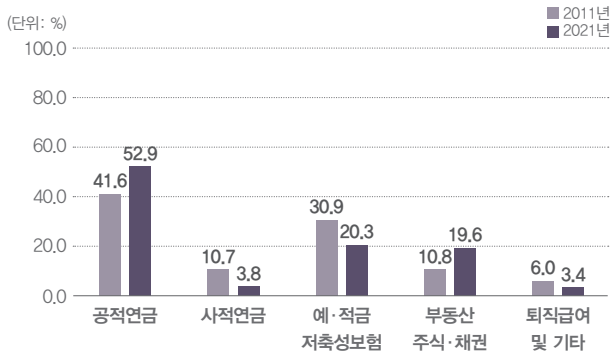
OECD 주요 회원국 75세 이상 인구 비중



노후준비 방법 : 65~74세



노후준비 방법 : 75세 이상



자료 통계청

2070년 75세이상 30.7% 고령인구 비중 OECD국 중 가장 높아진다

2037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75세 이상 고령인구가 65~74세 인구보다 많아진다. 2070년에는 인구의 30.7%가 75세 이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속도의 그래프도 아주 가파르다. 65세 이상 고령화 비중이 14%에서 20%로 도달하는 연수를 보면 한국의 경우 7년(2018→2025년 예상)에 불과하다. 일본 10년(1994→2004년), 미국 15년(2014→2029년), 프랑스 39년(1979→2018년)과 비교하면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다. 기대여명(앞으로 생존기대기간, 2021년 조사)은 65세 이상은 86.6세까지, 75세 이상은 88.4세까지로 답해 10년 전보다 각각 2.2년, 1.6년이 늘었다.

통계청은 지난 10년간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를 분석한 내용을 6월 16일 발표했다. 이는 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가 고령층에 진입함에 따라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분석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65~74세와 75세 이상으로 세분해 인구, 건강, 노동, 소득 등 부문별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8.4%, 2037년 31.9%에 달한다. 그중 7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7.7%로 65~74세(10.7%)보다 적지만 2037년에는 16.0%로 늘어나 64~75세(15.9%)를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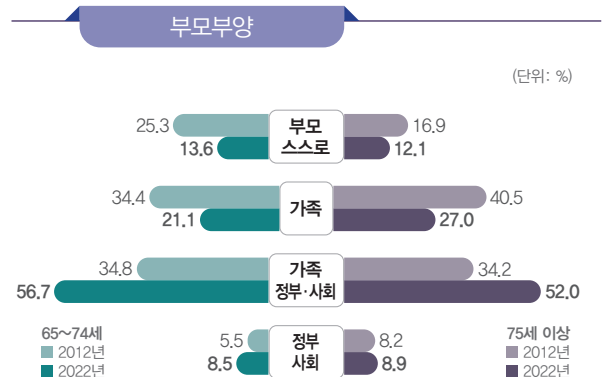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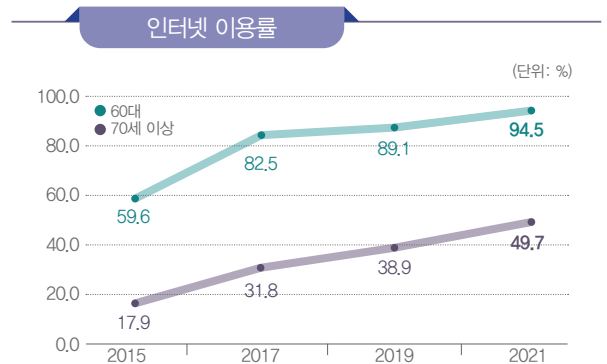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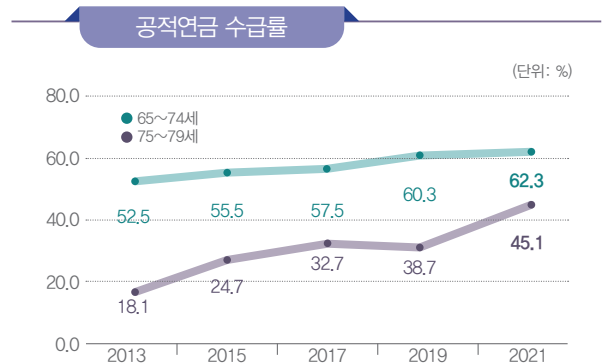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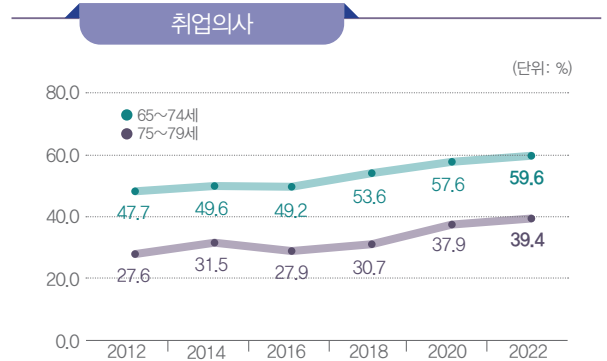
생활비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담한다고 답한 비율이 65~74세가 78.7%, 75세 이상은 46.0%(2021년 기준)였다. 이는 10년 전보다 본인·배우자 또는 정부·사회단체 지원은 증가하고 자녀·친척 지원은 감소한 것이다.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는 65~74세는 근로·사업소득이 54.2%, 75세 이상은 연금·퇴직급여가 42.4%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평균 생활비에 비교해 소득수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5~74세 가구는 59.3%, 75세 이상은 63.8%에 달했다. 노후준비에 대해서는 65~74세의 66.8%, 75세 이상은 42.7%가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고 준비방법은 공적연금이 가장 많았다.

‘일하고 싶다’ 65~74세 59.6%, 75~79세 39.4%

근로의사는 10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022년 기준 65~74세의 59.6%가, 75~79세는 39.4%가 근로를 희망했는데 이는 10년 전보다 각각 11.9%포인트(P), 11.8P 상승한 것이다. 일자리 선택 기준은 ‘일의 양과 시간대’를 가장 우선시했다. 희망 일자리 형태는 근로를 원하는 65~74세의 56.8%가, 75~79세의 79.7%가 시간제 근로를 꼽았다.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모두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가 절반을 넘었다.

인터넷 이용률도 크게 늘었다. 2021년 기준 60대는 94.5%, 70대 이상은 49.7%로 2015년 조사보다 각각 34.9P, 31.8P가 상승했다.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 또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고령자도 늘었다. 65~74세는 53.2%, 75세 이상은 41.0%로 10년 전에 비해 각각 10.5P, 6.1P가 상승했다.

주거형태는 2020년 기준 자가가 65~74세는 73.9%, 75세 이상은 76.4%였고 월세는 각각 15.1%, 11.9%였다. 이는 10년 전보다 65~74세의 경우 자가·전세 비중은 감소하고 월세는 증가한 반면 75세 이상은 자가는 늘고 전세 비중은 감소했다. 상대적 빈곤율(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76세 이상이 51.4%, 66~75세는 30.5%로 10년 전과 비교할 때 각각 3.9P, 13P가 낮아졌다. **K** 강정미 기자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 대상 ‘청성’

“성인이 되기 위한 생활지식 어디서 배우지? 그 질문으로 시작 ‘대한민국 배움터’ 만들었어요”

“스무 살이 넘었지만 근로계약서나 부동산계약서는 어떻게 쓰는지, 자산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대학에 막 입학한 새내기 위한 배움터처럼 이제 막 성인이 된 청년들에게 필요한 기초 생활지식, 청년정책 등을 알려주는 배움터나 가이드북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청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교육 플랫폼 ‘대한민국 배움터’로 대통령상인 대상을 받은 ‘청성’팀의 설명이다. 윤석열정부는 역대 최초로 청년정책을 상위 20대 국정과제에 명시하고 중앙부처에 청년보좌역을 두는 등 청년의 정책과정 참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국무조정실과 청년재단은 이에 더해 일반 청년들의 직접적인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추진했다. 지난 3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공모전에 응모한 청년은 총 710여 개 팀 2000여 명에 달한다. 이중 최종 6개 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6월 4일 열린 최종 심사에는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전문가 등 5명의 패널과 청년 150명이 나섰다. 순위는 패널들의 평가와 청년들의 지지도를 집계해 선정했다.

약 3개월간 이어진 공모전에서 ‘대한민국 배움터’로 대상을 받은 청성은 스무 살이 된 청년들이 사회에 처음 나왔을 때 겪는 당혹감에 주목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청년들이 ‘나는 성인이다’라고 느끼는 나이는 평균 28세다. 성인이 됐으나 성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한 ‘자립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었다. 그런 고민 끝에 나온 ‘대한민국 배움터’는 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생활지식 등을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제공하고 청년정책에 따른 혜택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이드북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공모전에서 최종 선정된 제안은 각 중앙부처의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등과 논의해 정책 반영 방향을 모색하고 예산 편성이나 입법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

의를 통해 후속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최종 수상작이 실제 정책으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길 생각”이라며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청년과 함께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상팀들도 정책으로 어떻게 연결될지 기대하고 있다. 대상 수상팀에는 1500만 원의 상금도 주어진다. 화제의 주인공인 ‘청성’의 김연수(21)·원동희(20)·전효은(20) 씨를 만났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공모전 경쟁률이 엄청났는데 대상까지 받았어요.

김연수(이하 김) 대상은커녕 최종예선에 올라갈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워낙 규모가 큰 공모전이라서 예선만 통과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끔 팀원들이 우리 이러다 상 받는 거 아니냐고 하면 기대하지 말아라, 공모전은 자주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될 거다, 그래야 상처 안 받는다고 한 게 저예요. 그런데 대상이라니, 정말 놀랐어요. 팀원들이 항상 말하는 ‘R=VD(Realization=Vivid

전효은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2학년
PT 담당, 마스크트

김연수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2학년
팀장, 디자인·영상 담당

원동희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2학년
대본·서류 담당



Dream·꿈꾸면 이뤄진다)'가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원동희(이하 원) 'R=VD'를 늘 외치는 게 전데요. 사실 1차 예선이 끝나고 예선 통과한 팀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너무 어린 것 같아 위축됐어요. 그래도 우리끼리 열심히 해보자, 할 수 있다며 서로를 격려하고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정말 기뻐요.

전효은(이하 전) TV조선에서 방영된 최종심사에 참여하게 된 것만 해도 '꿈같다'는 말이 계속 나올 만큼 놀라운 결과였어요. 최종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우리 팀에게 표를 많이 줄 땐 설마 방송이라서 그런가 의심하기까지 했단니까요(웃음).

공모전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요?

김 저희는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들이예요. 모의국회라는 학회를 같이하는 동아리 친구

이기도 하고요. 하고 있는 공부나 관심사가 비슷하다 보니 같이 할 수 있는 공모전을 찾아봤고 이번 공모전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또 청년들에게 열려 있는 공모전이어서 함께 도전해보자고 했어요.

'청성'이란 팀명은 무슨 뜻인가요?

원 청성(淸省)은 '잘 조사하여 까다로운 규칙을 고치고 융통성 있게 만든다'라는 의미예요. 저희의 정체성을 담은 '청년성신인'을 줄인 말이기도 하고요.

각자 팀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요?

원 저는 대본을 쓰거나 자료를 글로 정리하는 서류 작업을 맡았어요.

전 저는 프레젠테이션(PT)을 담당했어요. 팀의 마스코트 역할도 맡고 있죠.

김 저는 팀장이면서 디자인과 영상을 만드는 일을 담당했어요.

'대한민국 배움터'라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나요?

원 청년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광범위하더라고요. 다양한 나이의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려니 막막했어요. 우리가 모든 청년을 대변할 수 없으니 우리 나이 또래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연수가 어느 날 '나는 아직 주거지원 받는 법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귀에 꽂혔어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은커녕 우리가 당장 아르바이트할 때 필요한 근로계약서 쓰는 법, 자취방 계약할 때 부동산계약서 쓰는 법도 잘 모른다는 걸 깨달았죠. 여권은 어떻게 만드는지, 전입신고는 어디서 하는지 모르는 것투성이였죠.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교육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어요. 하지만 청년이라는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 좀 더 세분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김 스무 살이 넘었는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어른이라고 할 수 있지, 이걸 어떻게 하면 정부가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어요. 갓 성인이 된 청년들이 원활히 성인으로 이행하도록 다양한 지식과 생활기술을 교육하는 교육 플랫폼을 고안하게 됐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했나요?

전 처음에는 '대한민국 배움터'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려고 했어요. 생활 지식이나 청년정책을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는 많지만 정보가 분산돼 있다 보니 일일이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새로운 사이트를 만드는 건 시간이나 예산이 많이 들고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 일인가 생각하게 되더군요. 예선 과정에서 전문가 멘토링을 받으면서 케이무크(K-MOOC·국내 우수

“

스무 살이 넘었는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어른이라고 할 수 있지, 이걸 어떻게 하면 정부가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



대학의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았어요. 케이무크는 대학생이라면 대부분 알고 학점 이수를 위해 활용하는 평생교육 사이트예요. 여기에 하위 페이지를 만드는 걸로 방향을 잡았죠.

원 대학생이 많이 쓰다 보니 접근성이 좋다는 게 장점이지요. 그렇다고 케이무크가 대학생만을 위한 사이트는 아니에요. 전 국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제공하죠.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도 많잖아요. 누구나 성인이 되기 위한 생활 지식과 청년정책을 배울 수 있게 고안했습니다.

‘대한민국 배움터’의 주요 내용은요?

김 만 19세가 된 성인에게 청년정책과 각종 혜택정보를 알려주는 가이드북을 배송하고 케이무크와 연계해 자산관리, 각종 계약, 생활기술 등 원활한 자립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대학에 갓 입학한 새내기들을 위한 배움터처럼 새내기배움키트(KIT)를 주고 필요한 정보나 교육은 온라인대한민국배움터에서 찾아보는 거죠. 케이무크에 접속해 온라인대한민국배움터를 찾아도 되고 가이드북에 QR코드가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영상으로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온라인대한민국배움터는 주거지식과 일상생활지식, 금융지식, 자기보호기술, 지역 사회지원, 취업노동지식 알기 등의 파트로 구성했다. 각 커리큘럼을 이수하면 청년 축하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방안 마련도 제안하고 있다.

최종심사는 TV조선에서 방송으로 진행했는데 떨리지 않았나요?

김 다행히 무대경험이 있어서 괜찮았어요. 동아리에서 모의국회를 연극으로 하거든요. 그땐 대본도 못 봤는데 대본도 있고 다행이다 했죠.

전 발표시간이 딱 5분이었어요. 2시간 짜리 연극도 했는데 이쯤이야 했어요.

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패널로 앉아서 긴장이 되긴 했어요. 관객도 많았고, 저희 발표에 호응해주니까 신이 나고 뿌듯했어요.

최종심사까지 약 3개월이 걸렸는데 가장 힘든 점을 꼽으라면요?

전 2월 말부터 5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회의를 했어요. 같은 학과고 수업도 비슷해서 만나는 날이 많지만 못 만나는 날에는 온라인으로 회의를 했고요. 발표가 있을 때는 연수 집

에서 밤샘 회의도 했어요. 나중엔 쉴 틈 없이 피곤에 찌든 얼굴로 회의를 했던 기억도 나네요.

김 괴로웠어요, 정말.

원 몸도 힘들었지만 우리가 제대로 가는 게 맞나 의심하고 자기 검열하는 시간이 많아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공모전처럼 청년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고 있습니다.

전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국가 공모전이 정말 많아졌어요. 하지만 청년이라는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 혼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요. 마치 MZ세대(밀레니얼+Z세대)처럼요. 우리 교수님과 우리가 같은 MZ세대인데 교수님이 생각하는 문제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정말 다르거든요. 청년도 좀 더 세분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김 보다 다양한 청년 계층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대학생에게만 국한되지 말고요. 대학생이 아닌 청년도 많으니까요.

앞으로의 꿈, 목표가 궁금해요.

원 저는 정치나 정책 관련 일을 하고 싶어요. 발언권을 얻는 자리, 공직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김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요. 아직 더 공부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보다 먼저 영화제에 나가 상을 받는 게 꿈입니다.

전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심이 많아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도 관심이 많고요. 창업해서 사회적 기업가가 되는 게 목표예요. **K**

강정미 기자

“
우리가 모든 청년을
대변할 수 없으니 우리 나이
또래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우리가 공감하고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기로 한 거죠.
”



페타이어·스티로폼·그물... 해수욕장 모래사장에 이 많은 쓰레기가?

인천 영종도 왕산해수욕장 ‘알줍캠페인’ 현장을 가다

우리는 매일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쏟아낸다. 그중에는 수거되지 못한 쓰레기도 있다. 이런 쓰레기가 모이는 대표적인 곳 중 하나는 바다다. 강에서 흘러온 쓰레기와 건설 폐기물, 어민들이 사용한 어망 등 어구들이 바닷가로 쓸 새 없이 흘러들어온다.

해양쓰레기는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선박 전복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 동물들이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다 죽기도 한다. 해양생물들에 낚시줄이나 그물 등에 얽히는 경우도 많다. 해양생태계에 큰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오염된 해변은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바다로 흘러간 폐플라스틱은 해양생태계는 물론이고 우리 식탁까지 위협한다. 이는 해변 인근의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진다.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보포털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약 14만 5000톤으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하는 해양쓰레기는 연 13만 8000여 톤. 매년 늘어나는 쓰레기를 감당하기 힘들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을 뿐 아니라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생긴 리아스식해안이 많아 쓰레기가 해변에 많이 모이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단체까지 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안 정화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이 활발한 나라 중 하나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인식 제고가 절실하다.

2022년 발생한 해양쓰레기 14만 5000톤

해양수산부는 시민 참여를 위해 연안 정화활동으로 ‘알줍캠



(왼쪽) 알줍캠페인 참가자들이 해변에서 주운 쓰레기를 넣은 마대자루를 끌고 있다. (오른쪽) 어머니와 함께 온 어린이 참가자들이 수거한 쓰레기를 들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알줍캠페인이 끝난 후 기념사진을 찍는 참가자들. 사진 C영상미디어

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알줍캠페인은 ‘알려주세요, 주워주세요’의 줄임말이다. 안전신문고 신고 등을 통해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를 알리고 쓰레기를 주우면서 걷거나 뛰는 줍깅(줍다+조깅·쓰레기를 주우며 운동하는 것)을 실천하는 국민참여형 연안활동이다. 5월 13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에서 시작된 캠페인은 강릉, 포항,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의 해수욕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6월 17일에는 인천 영종도에 있는 왕산해수욕장에서 알줍캠페인이 진행됐다. 캠페인에는 220여 명이 신청서를 냈다. 토요일 오전 10시, 늦잠을 자거나 여행을 떠나고 싶은 유혹을 뒤로한 채 많은 사람이 바다 청소를 위해 모였다.

캠페인 시작 시간인 10시가 좀 지나 캠페인을 주최한 해양환경공단 해양폐기물관리센터 김현수 대리가 행동요령 등을 설명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해양 정화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바다살리기네트워크의 협력단체 레디(ReDi)의 이유나 씨,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 타일러 라쉬 등도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동아리 활동을 위해 단체로 온 학생들, 어린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러 온 가족, 친구 등 다양했다. 그중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로만 보이는 어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가족 단위 참가자가 가장 많았다. 레디의 이유나 씨가 참가자들에게 안전수칙에 대해 설명하자 아이들이 귀



(위) 환경운동가이자 방송인인 타일러 리쉬가 참가자들을 대표해 캠페인 참여소감을 말하고 있다.
(아래) 해변에서 주운 유리조각으로 목걸이를 만드는 참가자들.
사진 ©영상미디어

“녹슨 못, 철사들이 모래에 박혀 있었다. 모처럼 가족과 해변을 찾은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아찔했다.”

를 쫓곳 세웠다.

“쓰레기를 주울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장갑을 꼭 끼고 쓰레기를 주워야 합니다. 유리병이나 페트병에 무언가 들어 있다면 열어보지 말고 바로 담아주세요. 안에 독극물이 들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바위 틈새처럼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참가자들은 흩어져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기자도 참가자들과 함께 쓰레기를 주웠다. 이날은 해무가 짙게 깔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참가자들은 발밑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쓰레기를 찾아다녔다.

모래 사이 숨어 있는 유리 조각, 거대한 폐기물

가장 흔하고 위험한 해양쓰레기는 모래 사이에 박혀 있는 유리 조각이었다. 이날 기자가 주운 유리 조각만 해도 유리병 2개는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었다. 뾰족한 유리 조각도 있지만 둥근 유리 조각도 꽤 보였다. 모서리가 둥글게 될 때까지 바닷가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냈을지 짐작케 했다.

인천 영종도에 사는 이은성(8) 양은 봉투 한가득 쓰레기를 주웠다. 이 양은 쓰레기를 주우면서 텔레비전에서 봤던 바다거북이가 생각났다고 했다. 이 양은 “바다거북이가 유리 조각을 먹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주웠다”며 “좀 전에 마스크도 주웠다. 마스크 끈에 걸려서 날지 못하는 새의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여기 있는 갈매기들도 날지 못할까봐 걱정이 됐다”고 말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건축 폐기물이었다. 녹슨 못, 철사들이 모래에 박혀 있었다. 갯벌 앞에서 발견된 공사장용 철재에는 해초가 감겨 자라고 있었다. 이날 해수욕장에는 알줍캠페인 참가자뿐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있었다. 모처럼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해변을 찾은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아찔했다.

참가자들이 어디선가 페타이어를 끌고 왔다. 타이어휠이 녹슨 것을 보니 바다에 버려진 지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았다. 어민들이 사용하고 버린 것으로 보이는 도구들도 있었다. 양식장 구역을 표시할 때 쓰는 스티로폼, 밧줄, 그물 더미가 큰 공간을 차지했다. 해수욕장에 놀러온 사람들이 버리고 간 폭죽 잔해와 과자봉지도 보였다. 어디서 흘러들어 왔는지 모를 나무판자나 커다란 각목도 있었다.

동아리 친구들과 참가한 인천영종고등학교 서지우(18)양은 “지난해부터 해양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해양쓰레기를 탐지하는 해양관측 데이터 수집도 함께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1시간 만에 산처럼 쌓인 쓰레기

줍기를 시작한 지 1시간이 흘렀다. 흩어져서 쓰레기를 찾던 사람들이 본부석 쪽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본부석에는 이미 쓰레기가 한가득 쌓여 있었다. 이 많은 쓰레기가 1시간 만에 발견됐다니 놀라웠다. 깨끗한 듯 보였던 모래사장에 숨어 있던 것들이었다. 참가자들의 쓰레기봉투는 하나같이 팍팍 채워져 있었다. 참가자들도 모아놓은 쓰레기 양에 깜짝 놀랐다. 모든 쓰레기를 자원봉사자들이 분리했다. 분리된 폐기물은 전문 수거업체로 넘겨졌다.

참가자들을 대표해 방송인 타일러 라쉬가 소감을 전했다.

라쉬는 “사람들이 즐겨야 하는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놀라셨을 것”이라며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쓰레기를 발견하는 상황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누리소통망(SNS) 이벤트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SNS 계정에 연안 정화활동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한 사진을 올렸다. 한 참가자는 효과가 좋을 것 같라며 지역 국회의원을 태그하기도 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에게는 대화용 빨대와 그물 에코백, 아이스크림 등 증정품이 제공됐다. 특히 아이스크림을 준다는 소식에 참가자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에 지쳐 있던 참가자들은 뽕튀기 과자 위에 한 스푼씩 올려진 아이스크림을 받아들고 갈증을 달랬다. 이벤트 트럭 아이스크림이 제공하는 아이스크림은 알줍캠페인이 진행되는 일부 해변에서 만날 수 있다.

캠페인이 끝난 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바다쓰레기를 활용한 목걸이 만들기 체험이 진행됐다. 바닷가에서 주운 유리 조각에 철사를 예쁘게 감아 목걸이를 만드는 체험활동이다. 인솔자의 설명을 들은 아이들은 고사리손으로 열심히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려고 애썼다. 내 손으로 주운 쓰레기로 나만의 아이템을 만드는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하루였을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해양환경공단이 주최하는 알줍캠페인은 10월까지 이어진다. 자세한 캠페인 일정은 바다가꾸기 누리집(www.cares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

장가현 기자

해양쓰레기 발견하면 안전신문고에 알려주세요!

1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2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기 선택



3 생활불편 신고 유형 중 해양쓰레기 선택



4 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 확인



5 사진 혹은 영상 첨부 후 제출



서울의 타임캡슐 서촌 골목마다 사연 가득



천천히 걸어 2시간이면 청와대 구석구석을 돌아 볼 수 있다. 다들 큰맘 먹고 나설 텐데 어딘지 아쉬운 시간이다. 내친김에 주변 동네를 구경하면 부족한 2%가 차고 넘친다.

청와대가 있는 서울 종로구는 17개 행정동과 87개 법정동이 있다. 청와대 경복궁 인근만 살펴 보면 이렇다. ▲청운효자동(청운동, 신교동, 궁정동, 효자동, 창성동, 통인동, 누상동, 누하동, 옥인동) ▲사직동(사직동, 체부동, 필운동, 내자동, 통의동, 적선동, 도림동, 당주동, 내수동, 신문로1가, 신문로2가, 세종로) ▲삼청동(삼청동, 팔판동, 안국동, 소격동, 화동, 사간동, 송현동) ▲부암동(부암동, 신영동, 홍지동) ▲가회동(가회동, 채동, 계동, 원서동). 광화 밖이 행정동, 안이 법정동이다. 주민센터는 법정동 몇을 묶은 행정동에 있다. 땅덩이에 비해 동네가 꽤 많다. 서울이 지금처럼 크지 않던 시절 인구수 기준으로 동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선 경복궁과 청와대 서쪽, 그러니까 흔히 서촌이라고 부르는 동네를 살펴보자. 역사가 오래된 만큼 일대는 대개 문화재 시굴 조사 대상지다. 건물을 지으려면 땅의 10% 정도를 사방 1~2m 정도 파서 살핀다. 옛 기와 찌가리라도 나오면 정밀 발굴조사에 들어간다. 가치 있는 문화재가 나오면 공사는 일단 정지다. 살고 있는 집을 마음대로 고치지도 못한다. 서울시 한옥 수선 지원금은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창틀, 대문, 외벽, 담장의 모양과 형태 재질까지 시시콜콜 정해져 있다. 집이 무너질 지경인데도 새로 짓거나 수리를 하지 않고 사는 이들이 많은 이유다. 역설적으로 이 덕분에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 많다.

경복궁 서문인 영추문 앞 아트스페이스3 갤러리(효자로7길 23)가 들어 있는 3층 건물은 지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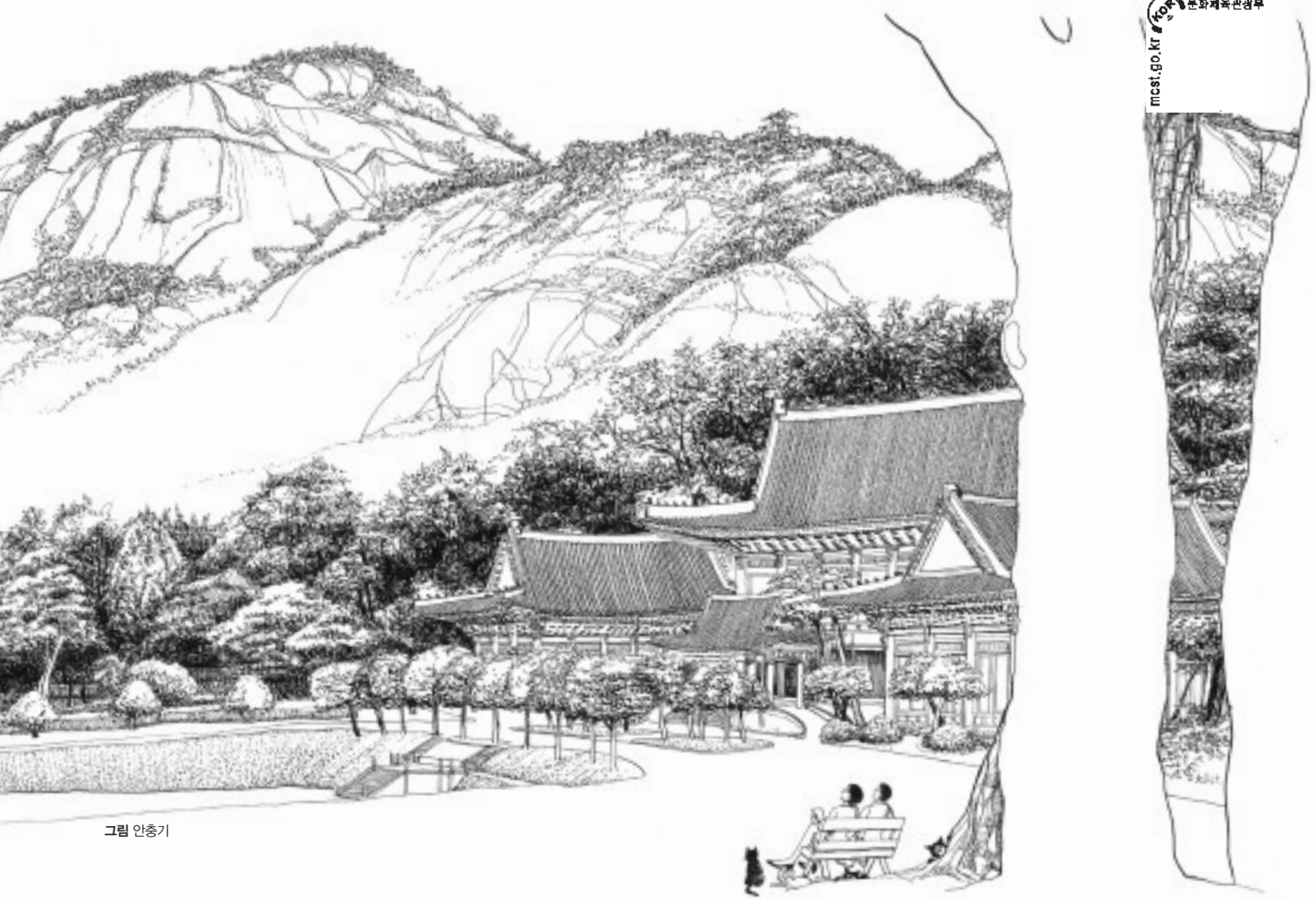


그림 안충기

16m다. 공사 때 땅을 파니 조선시대 집터가 나타나 나왔다. 고심하던 건축주는 계획보다 땅을 더 깊이 파고 집터를 그만큼 내려 보존했다. 덕분에 방문객은 강화유리 위를 걸어 다니며 조선시대 유적을 구경하게 됐다.

청와대 영빈관 옆에는 칠궁이 있다. 조선시대 왕비가 되지 못한 왕의 어머니들의 신위를 모신 곳이다. 칠궁 입구 길 건너가 무궁화동산이다. 그 안에 김상헌 집터가 있다. 김상헌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항복을 거부한 척화파 대표다. 무궁화동산 자리인 궁정동에는 옛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안가가 있었다. 1979년 10월 26일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을 맞고 생을 마감했다. 김상헌 집터 바로 옆인데 현장에는 그 날의 비극을 말해주는 어떤 표식도 없다. 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안가를 모두 헐고 공원으로 만들었다. 분수대 옆 광장 바닥에는 삼각

청와대 영빈관 옆에는 칠궁이 있다. 조선시대 왕비가 되지 못한 왕의 어머니들의 신위를 모신 곳이다. 칠궁 입구 길 건너가 무궁화동산이다. 그 안에 김상헌 집터가 있다. 김상헌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항복을 거부한 척화파 대표다. 무궁화동산 자리인 궁정동에는 옛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안가가 있었다.

형 동판 하나가 누워 있다. 1960년 4월 19일 화요일 오후 1시 40분경, 이승만 독재에 항거하는 시위대에게 경찰이 처음 발포한 자리다. 이날 21명이 죽고 172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복궁 서쪽 담장에 붙어 있는 효자로 땅속에는 지금도 일제강점기에 만든 전차길이 있다. 분수대 근처가 종점인 효자역이었다. 1923년 전차길을 내며 서십자각이 헐려나갔다. 동남쪽 모서리에 있는 동십자각도 본래는 경복궁 담장 일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인왕산 치마바위에 새긴 글자. 1940년 촬영 추정. 사진 국립중앙박물관



작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는 통인시장. 기름떡볶이가 소문났다. 사진 안충기

였다. 1929년 박람회 열며 도로를 내 지금처럼 섬이 됐다. 서울 인구가 늘어나며 전차 노선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송례문~효자동 구간은 콘크리트로 궤도 위를 덧씌워버렸다. 1966년 10월 31일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이 서울에 오기 직전이었다. 이번 봄 광화문 앞 월대 복원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차 궤도가 이 노선이다.

통인동에는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 일가의 흔적이 있고 이상(시인)·변동림·김환기(화가)가 얹히고설킨 애잔한 사랑 이야기가 있다. 창성동엔 서정주가 장기 투숙하며 김동리·김달진·오장환 등과 동인지 ‘시인부락’을 만든 보안여관이 있다. 청운동은 송강 정철과 겸재 정선이 나고 자란 동네다. 옥인동에는 친일파 윤덕영의 ‘아방궁’ 벽수산장이, 통인동에는 이완용의 널따란 저택이 있었다. 화가 이상범·천경자·구본웅이 누하동에, 체부동에 노천명이 살았으니 우리 근현대사의 명암과 예술의 향기가 골목마다 배어 있다.

서촌 어디서나 길을 걷다가 고개를 들면 인왕산이 보인다. 정상 아래 널찍하게 펼쳐진 치마바위(병풍바위)는 일제강점기 때 수모를 당했다. 1940년 조선총독부가 도성 안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큼지막한 글자들을 새겨 넣었다.

東亞靑年團結 동아청년단결

皇紀二千五百九十九年九月十六日

황기 이천오백구십구년 구월 십육일

朝鮮總督 南次郎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

大日本靑年團大會 대일본청년단대회

조선 청년들을 전쟁에 밀어넣기 위한 밑 작업이었다. 당시 1만 1454원을 들여서 7개월 동안 작업했다. 광복 뒤 서울시가 이를 삭제했지만 매끈하던 바위에는 지금도 어지러운 흉터가 남았다. 서촌을 한 바퀴 돌아보고 통인시장이나 금천교시장에서 허기를 채우면 근사한 한나절이 간다. **K**

안충기 중앙일보 기자 <처음 만나는 청와대> 저자



그린무브공작소 이채진 대표

연 700톤 폐장난감에 새로운 삶을 찾아줍니다

장난감 나눔과 소재 재활용으로 선순환을 실천하는
그린무브공작소 이채진 대표가 폐장난감으로
만든 자동차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린무브공작소와 코끼리공장에 모이는
폐장난감 양은 연 700톤 정도 된다. 사진 C영상미디어

전 세계에서 한 해 버려지는 장난감은 240만 톤이다. 매년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800만 톤 가운데 장난감이 약 30%를 차지한다. 코로나19를 지나며 그 양은 더 많아졌다. 플라스틱은 썩는 데도 50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더 사용할 수 있어도 버려지는 물건이 많은 세상이라지만 장난감 문제는 더 심각하다. 과거에는 형제·자매가 많아 장난감을 물려주며 재활용했다. 요즘엔 1~2명의 아이가 쓰고 버리고, 주변과 나눠 쓰는 걸 불편해하는 경우도 많다. 사용 연한이 짧다 보니 상태는 예전보다 양호하다.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던 친구가 미래세대의 환경을 해치는 모순을 만드는 셈이다.

사회적협동조합 그린무브공작소는 이 점에 주목했다. 2014년 울산에 사회적기업 ‘코끼리공장’을 먼저 설립하고 기부받은 장난감을 수리·소독해 취약계층에 나눠주기 시작했다. 폐장난감 배출량이 많은 수도권 지역은 문제가 더 심





1,2 상태가 괜찮은 장난감은 수리와 소독을 거쳐 새로운 주인을 찾는다. 색이 바랬거나 고쳐 쓸 수 없는 장난감은 분해해 플라스틱과 부품별로 나눈다. 사진 C영상미디어

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20년부터 현대차그룹과 협업체 경기 안양에서 그린무브공작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린무브공작소가 수도권 3000개 아동 관련 기관에서 수거하는 장난감 양은 연 40톤, 코끼리공장이 전국의 개인·기관에서 받는 장난감 양은 월 40~60톤에 이른다. 월세 5만 원의 작은 공간에서 출발한 코끼리공장의 나눔 정신은 이제 경기·인천·울산에서 4개 사업소를 운영할 만큼 확장됐다. 그린무브공작소 이채진 대표의 말이다.

“초기에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는 안 쓰는 장난감을 기부받아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는데 과거에는 지금처럼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지 않았거든요. ‘그냥 버리면 되지, 왜 다시 써야 하나’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이젠 상황이 완전 달라졌어요.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이 활동을 지지하고 동참하는 가정과 기관도 늘었어요.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거죠.”

장난감만큼은 빈부격차 없길

그린무브공작소가 기부받은 장난감은 1차 선별 작업에 들어간다. 비교적 상태가 괜찮은 장난감은 수리와 소독을 거쳐 새로운 주인을 찾아간다. 대상은 대부분 취약계층 아이들이다. 이 대표는 아이들의 꿈과 가능성을 키우는 놀이에 서만큼은 격차를 최소화하고 싶었다.

“장난감에도 빈부격차가 반영되는 게 안타까웠어요. 여유 있는 집의 아이뿐 아니라 복지예산이 많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아이들은 좋은 장난감을 갖고 놀거든요. 반면 취약계층 아이들의 상황은 어렵죠. 의식주 문제 해결이 당장 급한데 연령대에 맞는 장난감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연령에 맞는 장

난감을 갖고 놀아야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자극이 이뤄져요. 시기에 맞는 장난감만 갖고 놀아도 아이가 타고난 역량을 더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기부받은 장난감이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우는 엄청난 일을 하는 셈이죠.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효과는 덤이고요.”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한 장난감은 매립·소각행이 되지만 그린무브공작소에서는 그렇지 않다. 색이 바랬거나 고쳐 쓸 수 없는 장난감은 재활용한다. 먼저 분해에 들어간다. 장난감은 플라스틱 외에도 전선, 나사, 스피커 등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재활용을 위해서는 플라스틱만 모아야 한다. 그 밖의 부품은 다른 장난감을 수리할 때 사용하거나 폐기한다.

플라스틱은 소재별로 분류한다. ABS(Acrylonitrile-Butadiene-Styrene·합성수지), PP(폴리프로필렌), PE(폴리에틸렌) 등 장난감에 쓰이는 소재가 다양한데 녹는점 등이 제각각이라 분류 과정을 거쳐야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소재별로 나눈 플라스틱을 잘게 부숴 녹이면 또 다른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있다. 폐플라스틱은 책상, 조명, 장난감, 화분 등이 돼 새로운 가치를 얻는다. 폐기될 뻔한 장난감의 사용 연한이 늘어나고 폐플라스틱이 재사용돼 탄소배출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린무브공작소의 활동이 단순한 나눔을 넘어 더 큰 의미를 지니는 지점이다. 이러한 가치에 기업들도 주목한다. 현대차는 폐플라스틱을 차량 물품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롯데케미칼은 자원순환을 지원하고 있다.

폐장난감이 화분·열쇠고리로?

이 과정이 아이들에겐 교육으로 활용된다. 안 쓰는 장난감을 가져오면 수리한 장난감이나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으로 교환해준다. 가령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화분에 탄소를 줄이는 식물을 심어 나눠주거나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열쇠고리를 가방에 달아주는 방식이다. 한때 소중하게 여겼던 장난감이 한 번의 쓸모를 더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환경 문제에 친숙하게 접근한다. 이러한 교육을 접한 아이들은 연 1만 명이 넘는다. 장난감에서 출발한 교육 효과가 다른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도 생긴다. 이채진 대표를 비롯한 일부 직원이 유아교육을 전공했기에 가능한 발상

“장난감에도 빈부격차가 반영되는 게 안타까웠어요. 여유 있는 집의 아이뿐 아니라 복지예산이 많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아이들은 좋은 장난감을 갖고 놀거든요. 반면 취약계층 아이들의 상황은 어렵죠.”

이었다. 이 대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기도 했다.

“도덕성이 거의 7세 미만에 많이 형성돼요. 도덕성은 환경 보호 인식과 연관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장난감 친구가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보면 더 흥미를 갖고 환경에 대한 이해도 훨씬 잘됩니다.”

친환경 교육 효과는 비단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어른들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다. 장난감 분류 작업에는 다수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다. 폐기될 뻔한 장난감이 재사용되는 걸 눈으로 보면서 폐플라스틱의 변신을 확인한다. ‘이렇게 버리면 재활용이 잘 안되겠구나’, ‘재활용도 소 재별로 나눠 배출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등을 인식하게 되고 이는 일상의 변화로 이어진다.

생애 첫 나눔을 배우는 시간

영화 <토이 스토리3>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는가. 대학생이 된 주인공 앤디는 더 이상 장난감이 필요 없는 나이가 됐고 어려서부터 함께한 장난감 우디·버즈·제시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 버리자니 이들과 보낸 추억이 밋히고, 다락방에 넣어두자니 방치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아서다. 결국 앤디는 이웃 소녀에게 장난감을 건넨다. 유년 시절을 지켜줬던 소중한 친구들을 소개하면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운명을 달리하거나 다락방에서 먼지가 쌓일 뻔했던 장난감들은 소녀와의 또 다른 삶을 시작한다. 앤디와 우디가 택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방식이다.

그린무브공작소를 찾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추억이 가득한 자신의 장난감이 다른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길 희망하며 보낸다. 그들 곁엔 새로운 장난감 친구가 채운다. 생애 첫 나눔을 배우는 시간이자 장난감에 새 삶을 불어넣어주는 아름다운 순간이다. 오늘도 그린무브공작소에서는 수많은 앤디와 우디가 헤어지고 또 만난다. **K** 선수현 기자



1 수도권 아동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그린무브공작소에 보내온 장난감 양은 연 40톤, 전국 개인·기관이 코끼리공장으로 보낸 장난감 양은 월 40~60톤에 이른다. 2,3 플라스틱 소재별로 분류한 장난감은 잘게 부숴 녹이면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4,5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열쇠고리와 화분. 아이들 환경 교육에 사용하는데 장난감이 다른 물건으로 변했다는 사실에 더 흥미를 가져 인기 만점 교구가 된다. 사진 C영상미디어

민간정원 1호 ‘아름다운정원 화수목’

테마정원, 숲, 100m 폭포... 평생 가꾼 내 정원 모든 사람들과 나눕니다



아름다운정원 화수목의 나무, 연못, 다리, 포토존 등이 조화를 이루며 여유로움을 더한다.
사진 조선뉴스프레스



충남 유일의 분재원에서 고가의 소나무 분재를 감상하는 재미가 있다. 같은 소나무라도 다르게 분재하니 각각의 개성이 돋보인다. 사진 조선뉴스프레스

6월의 싱그러움을 고스란히 품은 곳 ‘아름다운정원 화수목(이하 화수목)’은 입구부터 자연의 향이 풍겨온다. 온갖 풀내음부터 서로 존재감을 다투는 갖가지 꽃향이 코끝을 스친다. 조잘대는 새소리도 정겹다. 서울에서 약 2시간 수도권을 조금만 벗어나면 만날 수 있는, 자연의 품속에 살포시 안길 수 있는 장소다. 충남 천안 시내에서 차로 20분 거리로 도심과 가깝다. 주변에는 독립기념관, 천안박물관, 소노벨 천안, 천안상록리조트, 천안삼거리공원 등 명소들이 체험·관광벨트를 이루고 있어 하루 여행 코스로 안성맞춤이다.

화수목은 대한민국 민간정원 1호다. 화(化)는 꽃을 의미한다. 결실을 맺기 전 화려한 꽃의 아름다움이 즐거움을 준다. 수(水)는 물로 생명의 근원을 의미한다. 물처럼 대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목(木)은 나무를 가리킨다. 나무는 든든한 집처럼 견고하지만 따뜻한 우리 터전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화수목에는 꽃과 물과 나무, 철저히 하게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움을 나누고픈 진심이 담겼다.

산책길 땀 식혀주는 폭포

화수목은 자연환경을 원물로 정원을 꾸민 곳이다. 계절마다 다양하게 피어나는 300여 종의 예쁘고 아름다운 꽃과 피톤치드 가득한 숲에 들어서면 절로 힐링이 된다. 버려진 산을 산책로로 만들고 사라졌던 실개천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길을 내어 생기를 불어넣었다. 잔디마당, 폭포와 연못, 유리온실, 테마정원, 산책로, 야외 포토존 등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심신의 건강과 오감 체험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게 만든다. 화수목 중간중간 배치돼 있는 다양한 조형물은 아기자기한 재미를 더한다. 대형 버섯, 노부부 캐릭터, 원숭이, 당나귀 등의 조형물이 정원 곳곳을 지킨다.

화수목의 가장 큰 즐거움은 산책로다. 대표적 산책로로 석부작길이 있다. 이곳의 석부작은 제주에서 온 현무암을 사용해 자연 일부분을 축소시켰다. 야생초와 분재, 이끼들이 현무암을 자연스럽게 파고들어 조화를 이루는데 돌과 생명의 본질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우러졌다.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 숨 쉬는 만물을 형상화한 예술작품에 가깝다. 이 밖에도 나무계단, 흙길로 된 산책로 등 여러 갈래가 있으니 취향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선택해 오르면 된다.

산책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숨이 살짝 차오른다. 그러다 이내 살포시 불어오는 바람에 이마에 맺힌 땀이 시원하게

100m에 이르는 폭포에
시원한 바람이 불 때면
잠시 더위를 식힐 수 있다.
사진 조선뉴스프레스



1 아름다운정원 화수목에는 산책로가 있어 취향에 따라 골라 걸을수 있다.
2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조형물. 주위를 풀잎이 감싸고 있어 이곳을 지날 때면 산속을 탐험하는 기분이 든다. 사진 조선뉴스프레스

식으며 상쾌해진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100m에 이르는 폭포다. “쇠아~” 하는 소리는 이곳이 정원인지 숲속인지 헷갈리게 만든다. 폭포 줄기를 따라 흐르는 물길은 정원 한가운데로 모여 연못을 이룬다.

화수목에는 충남 유일의 분재원이 있다. 작은 분상에 자연을 표현한 분재는 자연의 미와 인위적 조형미가 더해져 감상하는 즐거움을 준다. 특히 고가의 소나무 분재는 작은 분상과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를 떠오르게 한다. 마치 숲이 작은 미술관 같다. 같은 소나무일지라도 각각의 개성으로 고고한 자태를 뽐낸다.

탐라식물원에는 육지에서 보기 힘든 나무들과 제주도 식물들이 식재돼 있다. 가로 40m, 세로 12m, 최저 5℃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계절 내내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어 충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굴나무가 열리며 야자수를 만날 수도 있다. 수령 450년의 동백나무, 굴나무, 소철 등 수십 종의 식물과 제주도의 현무암으로 깎아 만든 돌조각상은 실내에 제주도를 옮겨놓은 듯하다.

“꽃 사진 찍다 하루가 부족해”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규모가 있는 집엔 정원을 들였다. 집이나 성, 궁전 안을 꽃으로 꾸미고 암석, 나무, 연못, 계단 등으로 적절하게 균형감을 모색했다. 동아시아는 자연을 최대한 살려 표현했으며 서양은 기하학적 요소나 조형물을 가미해 정돈했다. 동서양을 관통하는 포인트는 결국 자연이었다. 생활 터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자연을 두고 싶은 마음. 그럴수록 고달픈 하루를 씻어내고 다시 일상을 마주

할 힘을 얻곤 했으니 말이다.

현대 사회에서도 누구나 마음 한 구석에 정원을 간직하지 않을까? 그 정원은 다른 말로 여유다. 바쁜 일상이지만 한 박자 느리게 쉬어가며 소소하게 꽃을 가꾸고 채소를 키우는 일상의 심표를 그린다. 저마다의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 정원을 꾸밀 수도 있다. 이웃끼리 시간을 맞춰 경기 평택에서 단체로 구경을 왔다는 윤경옥 씨는 “근처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다”면서 “산책 삼아 둘러보는데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다. 도시에 살면서도 자연을 꿈꾸는 이들이 화수목에서 찾는 여유의 결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식물을 좋아하거나 꽃을 보면 휴대폰 카메라부터 꺼내드는 이들의 눈은 절로 휘둥그레진다. 홍성연 씨는 “평소 꽃 사진을 많이 찍는데 여기에는 예쁜 꽃이 하도 많아 발걸음을 옮기기가 힘들다”며 “꽃 사진을 찍다 보면 하루도 부족할 것 같다”고 꽃처럼 웃었다. 전원생활을 하는 이들은 정원사의 취향과 가드닝(생활 원예) 실력을 참고할 수 있다. 우리 집 마당에는 어떤 꽃과 나무가 어울릴지 고민하며 식물들이 건네는 인사를 하나씩 마주하면 된다.

민간정원 100호 지정 ‘루몽드 정원’

민간정원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해 수년간 정성을 다해 가꾸은 정원을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제정하고자 시작됐다. 2015년 화수목을 제1호로 최근까지 전국 100여 개 정원이 등록·운영되고 있다. 지난 5월 10일에는 전남 장성군의 ‘루몽드 정원’과 전남 여수시의 ‘꿈꾸는 정원’이 각각 민간정원 제100호, 101호로 지정됐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며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민간정원에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은 자유롭다. 규모에 상관없이 정원을 아끼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다만 녹지 면적은 40%를 유지하고 정원을 찾는 손님들을 위한 화장실과 주차장이 구비돼 있어야 한다.

산림청은 최근 전국에 등록된 민간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권역별로 담아낸 <대한민국 민간정원 핸드북(안내서)>을 발간해 국민이 쉽게 민간정원을 골라 방문할 수 있게 했으니 참고하자.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통합자료실’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정원누리(www.koagi.or.kr/garden)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선수현 기자

전국 100여 곳에서 만나는 민간정원



| 강원 | 야생화 테마 미니 동물원
'돼지문화원'

다복의 상징으로 여기는 돼지를 테마로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낭만을 제공하는 특별한 공간이다. 하늘 가득 별들이 쏟아질 것 같은 펜트하우스가 있고 펜션과 카라반 등에서 숙박이 가능하다. 돼지문화원의 피그 사파리, 토토굴, 꼬꼬댁, 아기돼지길 등에서 건강한 생명력이 느껴진다. 사계절 내내 금낭화, 원추리, 장미, 국화 등 다양한 꽃과 인공폭포 등 볼거리가 많다.

- 강원 원주시 지정면 송정로 130



| 충북 | 시골 풍경의 편안한 붉은 벽돌집
'로사의 정원'

2003년 건축과 인테리어 일을 하는 부부가 지은 붉은 벽돌집은 2004년 자랑스러운 건축상을 받았다. 마당에 호미로 심은 자작나무는 정원의 나이를 알려준다. 벽돌집 주변으로 부부가 이뤄온 애정 어린 정원이 자리한다. 어린 연꽃이 한가득 피어 있는 연못 주변으로 노루오줌과 루드베키아, 삼색버들이 무리지어 있다. 6월에는 메밀꽃밭, 백리향, 노루오줌, 베르가모트, 장미, 에키나시아 등이 만발해 있다.

- 충북 제천시 백운면 애련로 181



| 전북 | 사랑이 샘솟는 곳
'달빛소리정원'

'숲캉스(숲+바캉스)'라 불리기도 하는 달빛소리정원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황순원 소나기나무'다. 500세 느티나무의 첫사랑 스토리텔링에 많은 이들이 추억을 엮으러 온다. 공조팝나무, 접시꽃, 백합, 수국, 핑크몰리 등이 포토존이 돼 준다. 숲길 산책의 편안함, 2층 목조주택에서 누리는 안락함, 호남평야가 보이는 달빛지평선 테라스, 인디언텐트와 나무놀이터처럼 아이들이 좋아하는 시설이 있어 더욱 친근하다.

- 전북 익산시 춘포면 천서길 150



| 전남 | <윤스테이> 촬영지로 유명한
'쌍산재'

300년 된 고택으로 집과 정원이 잘 보존됐다. 아담한 대문을 지나 안채와 사랑채, 서당채와 정자 등을 지나면 대나무숲과 차밭, 동백나무 터널이 나온다. 규모를 알 수 없는 고택 담장은 세상과 단절된 비밀의 정원처럼 또 다른 세상을 품고 있다. 7년 가뭄에 석 달 장마에도 물량이 일정하다는 신령스러운 샘 '당물샘'은 장수마을의 비결이기도 하다. tvN <윤스테이> 촬영 장소로 입소문을 탄 곳이다.

- 전남 구례군 마산읍 장수길 3-2



| 경북 | 숲과 자연, 정원이 어우러진
'숲마을정원'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숲마을정원은 포항시산림조합에서 숲과 정원이 어우러진 복합산림 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 산책로를 포함한 야외정원은 이동 동선이 완만하다. 유리온실인 식물정원에는 아자수 등 76종 총 3000여 본의 식물이 식재돼 사계절 내내 꽃과 나무를 즐길 수 있다.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포항 그린 웨이(Green Way) 프로젝트'와 연계해 매년 가드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새마을로 331-6



| 경남 | 정원사가 만든 동화 속 세상
'남해토피아랜드'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대방산 자락의 남해토피아랜드는 700여 점의 토피어리(식물을 이용한 조형물)가 있다. 거대한 공룡부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까지 다양하다. 처음 구상한 대로 모양을 낸 후 봄, 여름, 가을 1년에 세 번 새순이 올라올 때마다 형태를 다듬는다. 4대에 걸쳐 가업으로 이은 노력의 결과물이다. 편백숲이 잇달아 있어 걷기 좋고 정원에서 보이는 바다에 마음을 맡겨도 좋다.

- 경남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270-106

전주한옥마을 한복대여점 1호 '한복남' 박세상 대표

한복 입혀주는 남자 10년간 300만 벌! 한복 체험을 전통 아닌 놀이로

호남지역 최초의 서양식 건물 전동성당 앞을 가득 메운 '셀 피족(자기 자신의 사진을 스스로 찍는 사람)', 한옥마을의 명물 수제 초코파이를 맛보기 위해 길게 늘어선 대기행렬, 자동차 대신 미니 전동차에 몸을 싣고 울퉁불퉁한 돌길을 오가는 가족과 연인들. 국내 대표적 관광명소로 손꼽히는 전북 전주한옥마을의 풍경이다. 그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건 색색의 화려한 한복을 입고 갓 쓰고 땀기머리 한 젊은 이들이었다. 취재진이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6월 중순, 30℃를 육박하는 때 이른 더위에도 전통 한복을 입은 청년들은 방탄소년단(BTS)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한옥마을을 누비며

사진을 찍고 쌍화차와 팔빙수가 한 상에 차려진 이곳만의 색다른 컬래버레이션(협업)을 즐기며 전통과 현대를 오가고 있었다.

“이렇게 더울 땐 저조차 한복을 입기 쉽지 않은데 관광객들은 참 즐거워 보이죠?(웃음) 6월은 관광 비수기인데도 이래요. 성수기인 7~8월이 되면 찜통더위에도 한복을 입은 관광객으로 이곳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아무리 더워도 전주에 오면 꼭 한복을 입고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복 체험이 필수적인 관광문화로 자리 잡은 거죠.”

한복 입기를 일상의 놀이로 만든 '한복남' 박세상 대표의 말이다. 박 대표는 2012년 '한복길'이란 이름으로 한복 대여 업체를 차렸다. 전주한옥마을의 1호 한복 대여점이었다. 이후 인근에는 수십 개의 비슷한 업체가 생겨났고 '한복남'이 서울로 진출하면서 그 영향은 경복궁과 광화문 일대로까지 퍼져나갔다. 한복을 입고 한옥과 궁 등을 거니는 문화는 지방에서 먼저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된 로컬문화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전주한옥마을을 비롯해 경복궁과 창덕궁, 경기 용인 한국민속촌 등 네 곳에 업체를 두고 있는 박 대표가 한 해 대여하는 한복만 30만~40만 벌, 10년간 사람들에게 300만 벌의 한복을 입혔다. 박 대표에게 '한복 입혀주는 남자'라는 별칭이 따라붙는다.

명절, 결혼식 등 특별한 날에만 입었던 한복은 이제 관광의 재미를 배가하는 '문화'로, 일상에서도 쉽게 즐기는 '놀이'로 거듭났다. 창업 12년 차, 박 대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한복을 입힐까'가 아닌 '한복을 입고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고 했다.

한복-한류 협업 콘텐츠 공모

한류스타와 손잡고 한복 개발 6월 28일까지 업체 공개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한복 분야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에 참여할 한복 업체를 6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4회를 맞는 이 사업은 한복 디자인사와 한류 문화예술인이 협력해 매력적인 한복을 디자인하고 홍보해 한류의 외연을 전통문화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에는 김연아 전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참여해 한복 60종을 개발하고 한복 화보 영상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통해 송출했다. 올해 사업에는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참여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중소기업 6곳을 선정한다. 사업을 통해 개발된 한복은 2023년 하반기 한복 화보·패션쇼 등을 통해 공개된다.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복남’ 박세상 대표는 전북 전주한옥마을에 최초로 한복 대여점을 열었다. 이후 서울 경복궁 등지까지 확장하며 한복 입고 관광하는 문화를 확산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한복을 창업 아이템으로 떠올린 이유가 뭐냐?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연 관광객이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10여 년 전만 해도 약 200만 명에 불과했다. 전주는 한식이 유명한데 밥을 먹고 나면 할 게 없었다.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곳을 찾을 수 있게 할까 고민한 끝에 떠올리게 한복이었다. 먹고 자고 입는 것부터 한국적으로 만들고 싶었다. 한옥과 한식은 있으니 나머지 빈자리를 한복으로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한복은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이라는 선입견을 깨기 위해 ‘한복축제’부터 기획했다고.

한복 대여점을 운영하기에 앞서 약 3년간 ‘한복데이’라는 한복축제를 통해 일종의 테스트를 했다. 누리소통망(SNS)에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고 ‘한복 입고 놀 사람 모이자’고 글을 올렸다. 그게 10~3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화제가 되면서 첫해에 100명, 그 다음 해에 3000명까지 모였다. 한곳에 모여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맞춰 춤을 추고 플래시몹 등을 하며 놀았다. 지방자치단체와 인근 상점 사장님들을 설득해 한복을 입고 오면 관광지 입장료를 면제해주거나 식당·카페 등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한복가맹

점’을 만들어 일종의 ‘한복여행코스’를 만든 거다. 누군가 혼자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이상하게 생각했겠지만 단체로 한복을 입어 ‘나도 입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

한복 대여점이라는 공급망을 통해 한복 관광에 대한 수요, 나아가 하나의 시장을 만든 셈이다.

‘한복길’이 문을 연 뒤 비슷한 대여점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 그렇게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에 한복이 매력적인 상품이 됐다고 생각한다. 나만 독점했다면 한복 대여 시장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다. 특히 민간의 힘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대부분의 전통문화 사업은 지자체나 정부 보조를 받는데 지원이 끝나면 사업도 끝나는 경우가 많다. 전통문화 사업도 고객과 직접 만나는 B2C 방식으로 운영해야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고 본다.

나조차도 3년 정도면 유행이 식을 줄 알았다. 관광지에서 한복 입고 SNS에 올리면 그걸로 끝일 줄 알았는데 한번 경험한 사람들이 또 오더라. 시장의 규모는 작아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전통문화의 특징 때문인 듯하다. 특히 요즘 10대들은 입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복을 오히려 특별한 옷으로 생각하고 관광지에서 입는 걸 무척 재미있게 여긴다.



박세상 대표는 창업 초기 한복의 일상화를 위해 전주한옥마을에서 '한복데이' 축제부터 만들었다. 2014년 축제에서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단체로 춤을 추고 있는 모습.



한국관광공사가 2018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한 한국여행박람회에서 외국인들이 '한복남'의 한복 입기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 '한복남' 제공

서울 경복궁에 지점을 낼 땐 전 직원이 반대했다고 들었다.

‘전주한옥마을이니까 입지 서울에서 누가 한복을 입느냐’는 게 당시 반대 이유였다. 그럼에도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있어 가능할 거라고 봤다. 외국인들은 우리 전통문화 체험에 대한 욕망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 예상은 적중했고 한복을 입고 서울의 궁을 거니는 문화는 외국인의 체험에서 시작해 역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퍼졌다. 이후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까진 매년 한복을 300벌씩 들고 해외를 돌며 ‘한복데이’를 개최했다. 사전에 신청을 받아 한복을 무료로 입혀주는 행사였다.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태국 방콕에서 진행한 ‘한복데이’엔 하루에 1000명이 몰리기도 했다.

한옥마을이 있는 지자체들로부터 컨설팅 요청도 받고 있다.

제안을 받아들이는 기준은 뭐냐?

한옥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한복을 입는 게 아니다. 한복을 입고 즐길거리가 있어야 한다. 창업 전 ‘한복데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자체 공연, 관광지 무료입장, 상점 할인과 같은 즐길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한옥마을은 주차장에서 메인거리까지 버스모만 이동할 수 있는데 이런 곳은 한복 입는 문화가 생겨나기 어렵다. 창업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나의 가장 큰 고민 역시 ‘한복을 입고 뭘 하면 재미있을까’다. 전통다과와 비빔밥 등을 응용한 메뉴를 선보이는 전통 카페·주점을 운영하는 것도 이 같은 고민의 결과다. 최근엔 전주한옥마을 인근 지역에 추억여행을 콘셉트로 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다. 갈수록 관광객

의 체류시간이 줄어드는 등 전주를 다른 도시를 거쳐 가기 위한 곳점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한복을 입은 이들을 낮엔 한옥마을에, 밤엔 테마파크에 머물게 하는 게 목표다. 한복 입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동시에 침체된 지역도 살릴 수 있다.

코로나19에도 관광산업을 혁신한 공로로 정부가 선정한 ‘2022년 우수 관광벤처’ 42곳에 이름을 올렸다.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은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나?

코로나19 때 온라인을 통한 한복 대여를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관광지의 대여점에 가야만 한복을 빌릴 수 있었지만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대여해줌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한복을 입을 수 있게 한 거다. 때마침 BTS, 유재석 등 연예인들이 일상에서 한복을 입은 모습이 노출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었다. 다음 목표는 해외진출이다. 해외에서 한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점점 더 전통적인 것과 결합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에 나가 한국사람이 피자를 팔면 얼마나 사먹겠나.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할수록 전통을 앞세워야 하는 거다. 그건 대기업보다 로컬기업이 오히려 잘할 수 있다. 그렇다고 오리지널리티만 고수할 필요도 없다. 한복입기가 대중화될 수 있었던 것도 전통을 놀이처럼 해석한 덕이다. 한국적 색깔을 유지하되 진입장벽을 낮춰 누구나 즐길 수 있게 하면 많은 이들이 전통의 아름다움을 알게 될 거라고 확신한다. [K]

조윤 기자

6070 이야기 배틀 ‘오늘도 주인공’ 16명 결선 진출 서바이벌 최종 승자는?

tvN STORY <오늘도 주인공> 방송정보

방송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방송채널 tvN STORY

재방송 tvN STORY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 tvN 매주 화요일
오전 1시 /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티빙(TVING)



사진 tvN STORY

60~70대 시니어들이 이야기예술인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학진흥원이 함께 제작 지원하는 CJENM의 예능프로그램 <오늘도 주인공>이 세간에 화제다. 문체부는 노년층이 창작예술인으로 활약하도록 지원하고 전통이야기 구연을 'K-전통문화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제작 지원하고 있다.

6월 13일 첫 방송을 시작한 <오늘도 주인공>은 대한민국 최장 이야기예술인들이 펼치는 매콤달콤한 이야기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영상심사로 선발된 6070 이야기예술인 50명 중 현장 오디션에 합격한 16명이 4명씩 4개 팀을 결성해 이야기구연극 경쟁을 펼친다. 프로그램 진행은 개그우먼 박미선이 맡았고 뮤지컬 배우 정영주, 코미디언 장동민, 가수 육중완, 개그우먼

홍윤화가 각 팀의 팀장으로 프로그램을 이끈다.


7월 18일 우승팀 탄생

첫 방송에서는 50명의 참가자가 현장 오디션을 거치는 과정이 공개됐다. 참가자들이 치열한 접전을 거친 끝에 최종 결선 진출자 16명이 가려졌다. 뮤지컬팀은 홍영란·이윤임·오세신·이선화 씨가 합류했고 국악팀에는 양순영·방영희·김은혜·이점순 씨가 낙점됐다. 백동자·이혜선·방인혜·류인숙 씨가 밴드팀이 됐고 배정인·허현숙·최영숙·이예훈 씨가 너버벌팀으로 결정됐다. 그중 뮤지컬팀 홍영란 씨와 오세신 씨, 국악팀 방영희 씨가 연예인 팀장 4명으로부터 모두 선택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최종 선발된 16명의 참가자 중 단체

미션을 통해 서바이벌 우승팀을 가를 예정이다. 매콤달콤한 서바이벌의 최종 공연은 7월 18일 방송된다. 이날 각 팀의 이야기구연극 공연을 본 전문심사위원들이 최종 우승팀을 발표한다.

<오늘도 주인공> 최종 우승팀은 2023년 10월부터 3개 내외 주요 도시에서 이야기극 전국 순회공연을 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2009년부터 전국 유아교육기관에 6070 이야기예술인(이야기할머니)을 파견해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와 선현미담을 들려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1기 30명 선발을 시작으로 해마다 활동 규모를 확대해 2023년에는 3000여 명이 8600여 개 유아교육기관에서 우리의 옛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장가현 기자

청년도약계좌 출시



‘근거중심의학’과 ‘나만의 비법’

우리는 정보가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건강은 물론이고 재테크, 자녀 양육법까지 정보는 무수히 많다. 그 중에서 누구나 관심을 갖는 것은 ‘103세 할아버지의 장수 비법’, ‘나는 이렇게 ○○억을 벌었다’, ‘나는 우리 아이를 이렇게 서울대에 보냈다’와 같은 ‘나만의 비법’이다. 좋은 대학에 가려면 열심히 공부하기, 부자가 되려면 낭비하지 말고 저축하기, 오래 살려면 적게 먹고 꾸준히 운동하기 같은 ‘정석’보다 특별한 비법에 왠지 귀가 더 쏠린다.

현대 의학의 시발점은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나 수술을 가능하게 한 마취제의 발견이다. 그런데 초기에는 항생제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안 쓰는 것보다 좋은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페러다임의 전환’은 과학자나 의사가 아니라 브래드퍼드 힐(Bradford Hill)이라는 통계학자가 이뤄냈다. 1947년 초반 영국 런던에서는 브래드퍼드 힐의 방법을 따라 당시 결핵 치료제로 등장한 항생제 ‘스트렙토마이신’을 55명의 환자에게 투여하고(실험군) 이들의 폐를 짜부라뜨리는 기존의 방법으로 치료받은 52명(대조군)과 비교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스트렙토마이신’을 투여받은 실험군은 6개월 후 55명 중에 4명만 사망했지만 기존 치료를 받은 대조군은 14명이나 사망했기 때문이다. 그 후로 의학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모두 동등한 조건으로 실험하는 무작위 대조 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s·RCT)가 표준이 됐다.

이렇게 현대 의학은 모든 치료의 근거를 실험과 연구를 통해 제시하면서 더 나은 치료를 위해 발전했다. 의사는 질환에 대한 치료방법을 제시할 때 약은 물론이고 실험과정까지 모두 상세히 밝혀 논문을 낸다. 논문을 읽은 다른 의사들 사이에서 격렬한 토론이 이뤄지고 다른 실험방법이 제시되기도 한다. 결국 집단지성이 인정된 치료법이 표준치료가 된다. 오늘날의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EBM)이다. 근거중심의학의 관점에서는 ‘나만의 비법’은 검증하고 토론해야 할 문제가 된다.

일상생활에서 ‘나만의 비법’을 검증하는 방법도 있다. 어느 한 축구선수의 능력이 부모님의 특별한 교육법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해보자. 그 축구선수가 축구를 잘하게 된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 때문이 아닐까? 그러나 이 비법의 효과를 검증하자고 시간을 돌려볼 수는 없다.

대신 나만의 비법이 정말 효과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나만의 비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무엇을 파는지, 비법을 전파하면 누가 이득을 보는지 살펴보면 된다. **K**



양성관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빛나는 외모만큼 눈부신 마음을 가진 의사. 글쓰기 플랫폼 ‘브런치’에서 2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한 작가이기도 하다. 〈히틀러의 주치의〉를 비롯해 7권의 책을 썼다. 의사가 아니라 작가로 돈을 벌어서 환자 한 명당 진료를 30분씩 보는 게 꿈이다.

클래식 돌풍 임윤찬 해외 오케스트라 첫 국내 협연



공연 루체른 심포니&임윤찬

2022년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역사상 만 18세로 최연소 우승한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루체른 심포니와 함께 국내 무대에 선다. 임윤찬이 국내에서 해외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05~1806년 설립된 루체른 심포니는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함께 유럽 최고의 여름 음악 축제인 루체른 페스티벌의 정규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명문 악단이다. 루체른 심포니는 새 상임지휘자 미하엘 잔 데를링과 4년 만에 내한한다.

임윤찬은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강단 있는 음악을 선보여 기존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은 물론 일반 대중까지 단번에 사로잡았다. 임윤찬은 콩쿠르에서 우승뿐 아니라 신작 최고연주상, 청중상을 수상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이번 공연에서 루체른 심포니는 멘델스존의 '한여름 밤의 꿈' 서곡과 교향곡 4번 '이탈리아'를 연주한다. 임윤찬과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으로 협연 무대를 선보인다.

일시 7월 2일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뮤지컬 모차르트!

199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초연한 이후 독일, 스웨덴, 중국, 일본 등 10개국에서 400회 이상 공연을 이어온 스테디셀러. 천재 음악가인 모차르트의 인간적 고뇌와 내면의 갈등을 섬세하면서 드라마틱하게 풀어냈다. 이번 시즌은 새로운 배우들이 캐스팅됐다. 주인공 모차르트 역은 이해준·수호·유희승·김희재가 맡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기간 ~8월 22일까지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뮤지컬 베르나르다 알바

초연 당시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여성 배우가 대거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1930년대 초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한 마을에 사는 베르나르다는 남편 안토니오를 잃고 팔년상을 치른다. 상중에 베르나르다는 가족에게 극도로 절제된 삶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 가족들은 첫째 딸 앙구스티아스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억눌린 본능과 감정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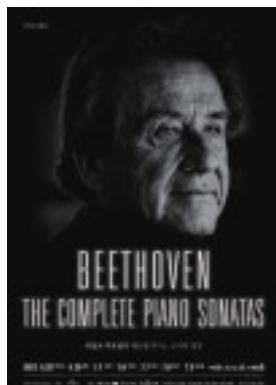
기간 ~8월 6일까지 장소 국립정동극장



연극 이방인의 노래

이 공연은 다른 문화와 다른 장르가 판소리와 만나는 지점을 찾아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시너지를 보여준다. 전통 판소리 이수자이자 창작 판소리 선두 주자인 이자람이 남미문학과 만난다. 이자람은 남미문학의 거장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단편소설 〈대통령 각하, 즐거운 여행을〉을 바탕으로 남미와 유럽을 오가는 소설 속 인물들을 판소리로 그려낸다.

기간 6월 29일~7월 2일 장소 CKL스테이지



공연 루돌프 부흐빈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I

현존하는 최고의 베토벤 스페셜리스트인 피아니스트 루돌프 부흐빈더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곡' 전곡을 7일간 연주한다. 루돌프 부흐빈더는 2014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연주한 최초의 피아니스트이자 세계 전역에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60회 이상 연주한 전설의 피아니스트다.

기간 6월 28일~7월 9일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도서 있는 공간, 없는 공간

바야흐로 '핫플(핫플레이스·인기명소)'의 시대다. 어떻게 '핫플'이 될 수 있을까? 저자는 낙후된 구도심이던 서울 익선동을 최고 상권으로 탈바꿈시킨 주역이자 손대는 족족 대박을 터트리며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는 공간 전략가로 글로벌서울 대표다. 그는 공간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핫플을 설명한다. 저자는 유행의 꿈무늬를 쫓는 대신 상업 공간이 나아갈 방향과 흐름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안내한다.

저자 유정수(쌤앤파커스)



영화 라방

프리랜서 PD 동주는 친구가 보낸 불법 몰카 라이브방송 링크를 여자친구 수진에게 돌려 이별의 위기를 맞는다. 수진의 생일날 이벤트를 준비하던 중 의문의 라이브방송 링크가 자동으로 열린다. 실시간으로 시작되는 몰카 라이브방송에 여자친구 수진이 나타난다. 정체불명의 라이브방송을 막기 위해 동주는 방송에 참여하기로 한다.

개봉 6월 28일

장가현 기자

초여름 밤의 콘서트



라포엠 OST 콘서트
여름밤의 라라랜드
기간 6월 30일~
7월 23일
장소 coex 신한카드
artium



2023 박정현 콘서트
The Bridge
기간 7월 1~2일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



2023 김정치마
ENDLESS SUMMER
기간 7월 7~9일
장소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

공감 칭찬합니다 :)



709호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고 다시 돌려받기까지 마음이 불안해 잠을 제대로 못 잔 경험에 있어요. 앞으로는 당황하지 않고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안전장치로 마련된 반환 금액 상한이 5000만 원으로 오른 것도 반갑지만 송금할 때 두 번 세 번 확인하는 습관도 들여야겠습니다. 연세가 많은 부모님께도 설명해드렸고요. 역시 <K-공감> '엄지 척'입니다! 김용산 경남 양산시 중부동



708호 국가보훈처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공식 출범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국가보훈부는 호국 선열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역할을 해왔죠. 이제 '부'로 승격됐으니 국가와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힘차게 파이팅도 외쳐봅니다! 강태균 부산 해운대구



...

공감 특이 도착했어요!

'Re:023 대전 엑스포 93'에 다녀왔습니다. 대전엑스포가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만큼 워터페스티벌, 청년푸드트럭, 엑스포 어린이놀이터, 맥주페스티벌, 벼룩시장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많았는데, 우리 두 딸도 분수쇼를 넌 놓고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사진에는 다 담기지 않았지만 실제로 보면 엄청 멋지고 근사해요. 8월 27일까지 열린다고 하니 <K-공감> 독자들도 나들이 다녀오세요! 조수인 충북 청주시

디지털 <K-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K-공감 gonggam.korea.kr

blog blog.naver.com/mcst_pr

k v.daum.net/channel/3094

f facebook.com/wegonggam

youtube.com/weeklygonggam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K-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감 칭찬합니다'와 '공감 특이 도착했어요'는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7월 5일까지 이메일(gonggam@chosun.com)로 보내주세요. 다음 호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정된 분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2023

공무원음악제 작품공모전

7.18.
8.02.

01 참가대상

현직·퇴직 공무원(국가/지방직), 공무원(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직원

* 공무원(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직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된 자로, 접수 마감일(23.8.2.) 기준 재직 중인 경우에만 인정

02 참가부문 : 4개 부문

부문	구분
보컬	가요 대중가요, 팝, 락, 랩 등
	성악 클래식 등
연주	기악(관현악, 타악 등), 재즈 등
국악	판소리, 민요, 관현악, 타악, 사물놀이 등

03 작품접수

•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www.geps.or.kr) 내 사업안내-후생복지사업-공무원예술대전에 접속, 인적정보 기입 및 출품작 등록(음원 파일)

* 상기 시스템으로만 접수 가능, 우편, 방문,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1차 음원 접수) '23. 7. 18.(화) ~ 8. 2.(수) 16일간

- 누리집에서 참가신청 및 녹음파일(음성) 등록(10MB) 이하
* 마감일 18:00 이전 제출분만 유효

• (2차 동영상 접수) 1차 예선 통과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접수기간 내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 후 링크 주소 시스템 입력

• (본선) 10월 중 예정(추후 공지)

04 시상 내역 : 총 13개팀

구분	훈격	시상인원	시상금	비고
대상	국무총리상	1팀	100만원	시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
금상	인사혁신처장상	3팀	70만원	
은상		3팀	50만원	
동상		3팀	30만원	
장려상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상	3팀	2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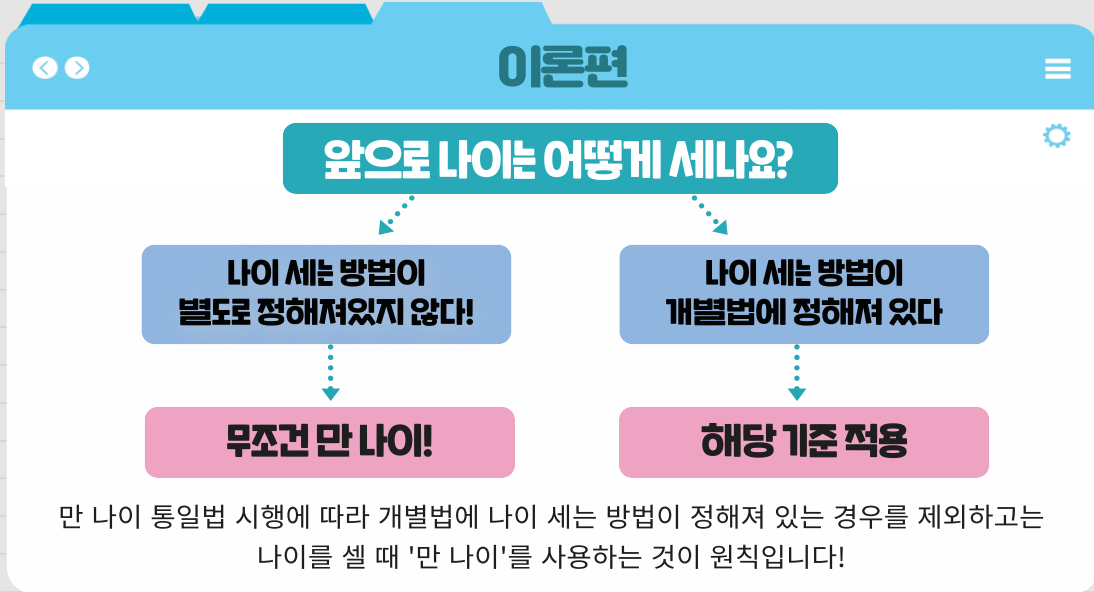
05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 팀당 5분 내외, 1차 예선부터 본선 경연까지 동일한 곡으로 참가, 음원을 보정하지 않은 원본이어야 함
- 최근 3년(20년~22년) 내 금상 이상 수상자는 전 부문 참가제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악단에 소속된 자는 참가 제한
* 최종 본선 경연에 한해 필수적으로 보조역할이 필요한 지휘자, 고수, 반주자는 사전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전문악단 근무자, 민간인도 허용(본선 경연 전 신청 접수 예정)
- 지휘자, 고수, 반주자의 경우도 팀원으로 참가 원칙
* 단, 보컬가요, 보컬성악 부문은 반주자가 반드시 팀원으로 참가할 필요는 없음
- 공연 내용이 공무원 품위유지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2차 예선 통과팀(명단)·작품(유튜브 동영상)은 본선 경연 전 15일간 누리집에 사전 공개
- 본선 경연 당일 반드시 신분증(공무원증 등) 지참
- 참가 경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제출한 녹음파일은 반환되지 않음
- 결과 발표 등 진행 상황은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향후 수상자는 재능을 활용한 자원봉사, 문화체험 소외계층 대상 무료 공연 등 공무원 재능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 요청



만나이 통일법 완·벽·정·리

행정기본법 6월 28일 시행



실전편 2023년 기준

“이럴 때는 무슨 나이를 쓰나요?”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를 물어보면?	✓	만 나이		예외	
국민연금 수령기준과 공무원 정년은?	✓	만 나이		예외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는?	✓	만 나이		예외	
대중교통 경로우대 기준은?	✓	만 나이		예외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기준은?	✓	만 나이		예외	
나이 세는 방법 관련 규정이 없다면?	✓	만 나이		예외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는?		만 나이	✓	예외	2016년생 입학
담배 및 주류 구매는?		만 나이	✓	예외	2004년생 부터
병역 의무는?		만 나이	✓	예외	2004년생 병역판정검사
공무원 시험 응시는?		만 나이	✓	예외	8급 이하는 2005년생 부터